



펴낸곳: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페이지: www.lgbtpride.or.kr
이메일: lgbtaction@gmail.com / lgbtpride@empas.com
트위터: @lgbtaction
페이스북: @LGBTQaction
전화: 02-715-9984
후원계좌: 신한 140-010-90533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호림)

발행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웹진: <http://lgbtpride.tistory.com/>
디자인: 이권우



행성인 A to Z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의 이야기



행성인 A to Z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의 이야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동하는 성소수자의 저항과 연대로 만드는 변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1997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으로 출발하여 1998년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2015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입니다. 행성인은 다양한 성적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비성소수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성적체성, 성별, 나이, 학력, 질병유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약속'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천'과 '연대'라는 주요한 활동원칙 아래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HIV/AIDS질병당사자,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등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폭넓은 연대를 만들고 함께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행성인은, 2017년 한국 사회 변화의 시점에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일곱가지 요구를 세상을 향해 알립니다. 한 해 동안 거리 곳곳, 삶의 공간 곳곳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HIV/AIDS 인권증진이
예방의 지름길!
에이즈 낙인을 없애자!**

트랜스젠더, 나답게 살 권리!

**교실에도 성소수자 있다!
교육에 다양성과 인권을!**

**일터에 무지개를 띄워라!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일터!**

**모두가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할 권리!**

**평등한 사랑, 평등한 권리,
동성결혼 NOW!**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중단하라!

홈페이지
www.lgbtpride.or.kr

후원계좌
신한 140-010-90533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호림)

<행성인 A to Z>는?

올해는 행성인이 스무살이 된 해입니다. 행성인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회원들과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A to Z>를 제작했습니다. 이 책은 알파벳 키워드에 맞춰 그동안 웹진을 통해 회원들이 남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글과 회원들이 자신의 관심사 고민, 계획을 담은 '활동가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행성인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에이섹슈얼, 이성애자 등 성적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듯이 행성인 회원들도 노동자로, 여성으로, 장애인으로, 청소년으로, HIV/AIDS 질병당사자로, 그리고 그들의 친구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세상을 바꾸는 것은 모두의 참여와 연대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대의 시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A to Z>에 담긴 다양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날줄과 씨줄로 얽혀 있는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시작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진 기획팀”

웹진기획팀은 행성인의 활동과 성소수자 이슈를 알리는 웹 매거진 <너, 나, 우리 '랑'>을 만듭니다. 인권과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기획, 취재, 편집, 글쓰기에 관심 있다면 웹진기획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행성인 활동 취재, 회원 인터뷰, 성소수자 모임 인터뷰, 퀴어 문화 리뷰, 해외 인권 소식,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좌담회, 본 책자까지! 다른 팀과 달리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웹진기획팀은 월 1회 기획회의를 통해 그 달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기사들을 기획합니다. 기획된 기사들은 월 1회 발행 작업을 통해 월간호로 발행됩니다. 시의성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월간호와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발행됩니다.

<4-50대 퀴어 토크쇼>, <동성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좌담회> 등 웹진 기획팀만의 독자 기획으로 행사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퀴어문화축제 때는 신문 형식으로 <웹진 호외>를 제작하여 지면 인쇄 후 배포하고 있습니다.

웹진 너, 나, 우리 '랑'
<http://lgbtpride.tistory.com>
웹진기획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행성인 대표 메일
lgbtpride@empas.com
으로 연락주세요!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평등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만들기 위한 시작!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져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나, 소수자 비하적인 욕설을 듣게 된다거나,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말로 훈계를 듣게 된다거나, 특정한 정체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한다거나,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행성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행성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 “평등한 행성인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부착해놓고,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 시작 전에는 이 약속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으나,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행성인을 찾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토론을 통해 언제나 변경 가능합니다.

-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임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청소년,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임 공간에 신경을 씁시다)

- 처음 보는 사이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말을 놓을지 여부는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합니다.

- 내가 누구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존중합니다)

- OO다워야 하는 건 이제 그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 정체성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괜찮은지 묻고, 원치 않는 공개를 피합니다.

- 소수자(여성/장애/질병/나이/인종)비하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 모임에 새로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어울립니다.

-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건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때 그때 표현하고 신뢰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해결합니다.

이를 위해 불편한 것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듭니다.

CONTENTS

목차



> p.10



> p.34



> p.36



> p.40



>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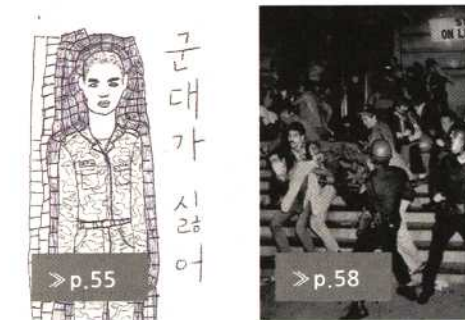
- A** Amatonormativity p. 10
연애정상성
- B** Bisexual p. 13
지금 이 순간 바이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
- C** Coming out p. 21
커밍아웃으로 한 걸음씩
- D** Diversity p. 23
소수자성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기 머뭇거리질 때
- E** Equality p. 25
함께 평등을 노래합니다!
- F** Feminism p. 27
게이와 페미니즘:
가깝고도 먼, 어쩌면 살얼음판 같은 관계에 대해서
- G** Gay p. 31
갓난아기가 바라본 이쪽 세상
- H** HIV/AIDS p. 34
지지? 뭘 지지하는데?
- I** IDAHO p. 36
아이다호 데어를 맞아 다시 생각해보는 전환치료
- J** Justice p. 40
왜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스티븐 스프링클 교수 강연회
- K** Korea p. 43
전국퀴어모여라, 일단 대전!
- L** Lesbian p. 46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성소수자 안전에 대해



>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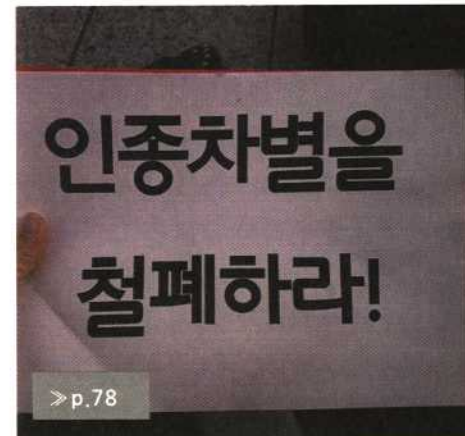
> p.51



> p.55



> p.58



> p.78

- M** Marriage p. 49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 N** Non-mono p. 51
내가 나로 살기위해서
- O** Open p. 53
벽장문을 깨고, 밝은 내일로!
- P** Peace p. 55
퀴어로서 병역거부를 고민하기
- Q** Queer parade p. 58
스톤월 항쟁과 자긍심 행진의 정신
- R** Remembering p. 62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 언제나 있으며 언제나 없는 이들을 기억하며
- S** Solidarity p. 66
무지개로 연대하라!
- T** Transgender p. 68
트랜스젠더 신여성이 보내는 편지
- U** Union p. 70
성소수자에게 노동권을 허하라!
- V** Vegan p. 72
채식하는 퀴어! 비건 퀴어 디올의 편지
- W** Work p. 75
당신의 모든 시간 - 당신의 일터는 어떠십니까?
- X** Xenophobia p. 78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 맞이 집회 참가 후기
- Y** Youth p. 80
우리 함께 변해볼까요?
- Z** Zigzag p. 82
반짝반짝 서로를 비추는 성소수자와 장애의 이상한 커피네

A Amatonormativity

연애 정상성

이 단어의 어원은 사랑 받는 사람을 뜻하는 “Amato”와 규범성 혹은 정상성을 뜻하는 “normativity”입니다. 연애정상성(Amatonormativity)은 연애 관계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규범성과 정상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사람이라면 집중되고 배타적이고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전형인 연애 관계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목표이자 따라야 할 규범이라고 말하고, 다른 유형의 관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연애정상성은 관계의 진행단계를 설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고, 함께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고 정상성에 부합하는 관계 이외의 것들을 모두 배제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연애정상성을 불편해하는 예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이 개념은 해외에서 무로멘틱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연애정상성이 무로멘틱 성향의 사람

들이 사회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불편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로멘틱 성향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긴밀하고 합의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끌림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연애 관계 또한 그다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정상성은 지속적으로 연애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무로멘틱 성향의 사람들을 규범성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기 일쑤입니다.

연애정상성은 이러한 규범성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연애정상성은 연애 이외의 관계를 덜 중요한 관계인 것처럼 만들고, 무로멘틱 성향이 지향하는 가치를 격하시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무로멘틱 성향의 사람들은 특정하게 합의된 관계를 원하지 않을 뿐 그 이외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로멘틱 성향의 사람들은 연애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쌓고 친구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무로멘틱 성향의 사람들은 연애정상성이 자신이 형성한 친구 관계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결국에는 누군가와 합의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연애정상성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애정상성은 다시 말해 연인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역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와는 연애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사자끼리는 가장 친하게 지내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 관계인데 주위에서는 밀어주겠다면서 연애를 부추기는 현상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당사자는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연애 관계와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주위에서 하도 부추기다 보니 마치 연애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연애정상성은 연애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연애 관계를 가장 절실하게 원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연애 관계보다 학술적

인 성취를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정상성은 연애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을 바람직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괴짜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연애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연애정상성은 동시에 연애의 이상적인 형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연애정상성에서는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표준화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알맞다는 이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로맨스를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해서도 다시 정해진 틀이 있는 행복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에 들어맞지 않는 흐름을 따라간다면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특이하다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더 나아가, 당사자는 자신에게 맞고 본인이 원하는 관계

를 형성한 것인데 주변에서는 튀려 하지 마라거나 그렇게 벗어나면 불행해진다며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연애 관계가 이들 사이에서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연애정상성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연애정상성에서 벗어난 양식을 부정하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결국에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연애정상성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무로멘틱 성향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꼭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연애정상성에 포함된 '진짜 사랑'에 대한 이미지나 연애 관계에서 강조되는 배타성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연애정상성은 그에 맞지 않는 사람마저 정상성에 맞춰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들은 연애정상성에 맞지 않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연애정상성에 함축된 규범성이나 정상성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는 행태가 오히려 비정상적임을 자각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케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이 글은 2017년 2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B Bisexual

■ 지금 이 순간 바이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

9월 23일은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이다. 안 들어본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1999년부터 시작된 꽤 오래된 행사이다. 유래는 세명의 바이섹슈얼 운동가인 웬디 커리, 마이클 페이지, 그리고 지지 레이브 월버 세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월버씨가 바이섹슈얼들을 위한 파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서 태동하였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자.

웬디 커리에 의하면

“해마다 있는 바이섹슈얼 컨벤션에서 조금 화를 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지지였던 것 같은데-우리 파티를 열자고 말했다. 우리는 위대한 바이섹슈얼인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했고 그의 생일은 9월에 있었기 때문에 9월에 하는게 어떻냐는 말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주말로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필 지지의 생일이 9월 23일이었고 그때가 주말이었다. 그래서 뿡! 하고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 스톤월 혁명 이후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역량과 가시화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바이섹슈얼 커뮤니티 역시 역량이 강화되었지만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아직 삭제되고 있다. 나 역시 사회에 의해 한 커플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그들의 인식된 젠더에 따라 헤테로 아니면 호모섹슈얼 커플이라고 명칭하게끔 길러졌다.

처음에는 몇몇 지역에서 행해지던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 축제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캐나다, 호주에 이어 독일,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고 영국에서도 행해진다. 2013년에는 백악관에서 20명의 바이섹슈얼 활동가들을 초청해서 바이 커뮤니티에 중요한 특정 이슈들을 얘기하는 세션이 있었다. 백악관에서는 처음으로 바이섹슈얼들을 특정한 첫 이벤트였다. 같은 해 영국에서는 여성평

등부 조 스윈슨이 “나는 바이섹슈얼들이 마주하는 이슈들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성을 축하하는 기회를 만들며 LGBT의 B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바이 가시화의 날을 환영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전 글(바이바이, 바이포비아)에도 썼지만, 바이포비아는 바이 커뮤니티의 특수적 이슈들을 “게이/레즈비언 이슈”라고 지칭하며 계속 삭제한다. 당시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섹슈얼을 인식할 때 이들의 성적 끌림이 “50대 50”으로 딱 떨어진다고 구상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니 “L에 가까운 바이” “G에 가까운 바이” 그리고 너무나도 말이 안되어서 웃기기까지 한 “바이섹슈얼 게이” “바이섹슈얼 레즈비언”같은 용어가 범람하는 것일 테다.

바이는 특별히 자기 자신만의 이슈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반응에 대응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은 꼭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꼈는지, 2014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바이섹슈얼 단체인 BiNet USA에서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을 둘러싼 7일을 “Bisexual awareness week”으로 지정

했다.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 웹사이트도 있다. <http://www.bivisibilityday.com/year2016/>에 들어가면 올해 어디서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알 수 있다. 현재 등록된 것만 하더라도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인데, 각국에서 축제를 개최한다. <http://www.bivisibilityday.com/tweet/>에서는 트위터에서 상위랭크로 올리기 위해 그날 해당 해시태그 #bivisibilityday와 #bipride를 달고 트윗을 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가시화의 반대는 ‘삭제’ 일 것이다. 2014년 12월 뉴욕타임즈에서는 “바이섹슈얼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해당 작가는 더 나아가 실제 바이섹슈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이섹슈얼 문화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글을 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 기사글에서도 말하듯이, 이런 바이섹슈얼들의 삭제는 실제로 바이섹슈얼들에게 크나큰 악영향을 끼친다. 바이섹슈얼 커뮤니티의 높은 정신질환 발병률은 바이포비아와 관련되어 있다. 바이섹슈얼 여성들의 경우 스토킹, 강간, 데이트폭력에 대해 헤테로나 레즈비언 여성보다 더 많이 노

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바이포비아를 호모포비아와 분리하여, 바이들이 고유한 억압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는, 현재 미국과 영국 바이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이다. 한 자메이카 남성은 자신이 바이섹슈얼이라는 점 때문에 자메이카에서 살해 협박을 받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영국에 난민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적을 가진 게이나 레즈비언들보다 사진자료를 포함한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리엔테이션은 “거짓”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바이 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강제 추방은 당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메이카인 바이 남성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여성과 결혼했으니 진짜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자메이카에서 돌을 맞고 얼굴이 칼에 찢어지는 등 공격을 당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분노한 다른 판사는 “해당 판사는 바이섹슈얼의 뜻을 모르는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쓰기도 했다. 현재 해당 남성은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미국내 바이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도 캐나다에서 나온 연구에서는 바이섹슈얼들이 레즈비언,

게이 난민들보다 신청에 대해 의심을 받고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다른 바이분(이하 명칭: 샬샤)과 짧은 인터뷰를 나누기로 했다.

겨울: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이포비아 관련 경험담을 들려주시겠어요?

샬샤: 솔직히 워딩들은 많았죠. 그러니까 저한테 타겟팅을 한 게 아니어도 그냥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L커뮤같은 곳 보면 굉장한데, 사실 지금 바이들만의 커뮤니티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 여성들은 주로 여성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L커뮤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L커뮤에 굉장히, 로다에 그때 들어갔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바이포박한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바이라고 발화하는거 자체가 터부시되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당시에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되게 익숙해 있었던 말이에요, 그 혐오에. 그러다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가... 당시에는 익숙해 있었는데 점점 더 이상하다 느꼈던 게, 자

꾸 저한테 니가 나중에 남자랑 결혼할 걸 다 안다던지, 자기가 그게 너무 무섭고, 네가 나중에 결국 남자를 만날거라 생각을 하고, 나와서 섹스에 만족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남자친구와는 페니스를 갖고 섹스를 했으니까, 내가 덜도를 사야 하나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그 전여친 뿐만 아니라 그 전여친의 친구들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전여친이 당시에 네살 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여친 보고 "야 개가 나중에 살다가 젊고 잘생긴 남자 만나지 널 더 만나겠냐." 그러는데 그걸 저한테 계속 투사하고, 내가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나는 너무 불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술먹으면서 내가 술먹으면 전화해서 쌍욕을 한다던지. 심지어 제 생일날이었는데, 자기도 술 많이 먹어서 나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제 생일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는데, 자기 댄에는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귀는 내내, 한 150일정도 사귀었는데 그 와중에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 되게 크게 현타가 왔고, 내가 바이라는 이유로 맨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러티브는 바이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문제다. 흔히 바이는 독자적인 어젠다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바이 섹슈얼의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담을 들 어보면 게이나 레즈비언과 다른, 바이에게 씌워지는 고유한 폭력의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섹슈얼 영화배우 앰버 허드의 경우, 조니 뎀의 데이트폭력은 앰버 허드가 "레즈비언인 친구와 관계를 끊기를 거부했"고 그의 바이섹슈얼리티 때문에 "조니 뎀이 불안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정당화되기도 했다.

겨울: 드라마 <굿 와이프>에서 김단님이 극 내 설정상 바이에도 불구하고 '레즈왕'이라고 불리는 식으로 삭제되면서 바이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샤샤: 저는 이게 바이 커뮤니티에게도, 레즈비언 커뮤니티에게도 전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성과 동성이 만나는 액션 자체를 모두 호모섹슈얼한 걸로 치환해 버리면 호모섹슈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바이라고 설정된 캐릭터라도 호모섹슈얼에 가깝게 치환을 하면서 호모섹슈얼리티를 강화하면 바이는 계속 호모+헤테로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건

바이섹슈얼리티 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고 호모섹슈얼리티를 강화하는 거고 결국엔 퀴어에게 전혀 좋을 게 없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퀴어 자체가 시스젠더 헤테로 호모섹슈얼리티 유성에 유로맨틱으로부터 '기타' 혹은 '반대'인 부분이니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 성적 지향과 성적체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그게 자기들 말에 정당성이 생기는지 의문이 들죠.

겨울: 바이 커뮤니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퀴어 집단보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비율이 높아요. 저는 이게 바이포비아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와요. 아까전에 엘커뮤 얘기를 했을때도 나왔듯이 오히려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퀴어 공동체 안에서 모두들 평등해야 하는데 그런 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바이로 커밍아웃하는 게 오히려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헤테로 사회에서 바이로 커밍아웃하는 게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는 게 더 쉽지 않냐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샤샤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샤샤: 사람들이 헤테로 사회에서 바이로 살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게 헤테로로 둔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이는 헤테로+호모가 아니라, 호모섹슈얼리티와 다른 집단이라는 거예요. 헤테로는 호모섹슈얼리티중 하나인데, 그 안에 편입될 수가 없죠. 아예 섹슈얼리티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계속 바이가 실제로 겪는 억압들을 그런 식으로 재차 삭제하면 헤테로 커뮤니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퀴어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배척당하면서 소속감도 못 느끼고, 실생활에서 수많은 억압들을 받고, 내재화를 강요당하고, 솔직히 매 순간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면 헤테로로 패싱이 되어버리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면 레즈비언으로 패싱이 되어버리는데 그건 둘다 내가 아니니까. 특히 바이분들이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레즈비언에 가까운 바이입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게 어떻게든 커뮤니티에 편입되기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 정말 헤테로로 둔갑을 할 수 있었으면 레즈비언에 가까운 바이를 안 붙여도 되어요. 그런데 왜 붙이냐면 레즈비언커뮤니티에 자길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테로 커뮤니티는 자기를 절대 안 받아주니까. 그나마 같은 퀴어로 묶이는 레즈비언커뮤

니티에 나를 어필해야 하는데 그냥 바이라고 하면 박쥐라는 멸칭처럼 억압이 깔려 있으니깐. 바이긴 바이인데 사실 거의 레즈비언이라고 어필하는 것 같아요.

겨울: 그리고 저는 그게 바이는 무슨 딱 50대 50으로 나눠져야 하고 그게 무슨 순혈 바이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샤샤: 맞아요. 사실 내가 남자한테는 10%만 성적으로 끌리고 여자한테는 90%정도 끌린다고 해도 내가 바이섹슈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이섹슈얼인거죠. 저도 저를 50대 50으로 정확히 나눌수 없고, 심지어 때마다 달라져요. 저만 그런가요? 유동적인 거죠. 어느 때는 진짜로 어, 거의 남성에게는 끌림이 없다가 어느 때는 거의 남성한테만 끌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상황의 문제지 그것가지고 바이네 레즈비언이네라고 절대 말할수 없다고 봐요. 특히 바이가 만나는 상대, 그것도 낭만적 연애를 하는 상대에 따라서 정체성이 헤테로 혹은 호모로 패싱된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요. 가장 고통받는 구분이죠.

겨울: 우리 커뮤니티에서 바이 삭제를 줄이려면, 예로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만,

동아시아 쪽에서는 바이 가시화를 축하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바이 삭제를 없애기 위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샤샤: 전 사실 제가 이걸 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커뮤니티든 어플이든 바이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바이섹슈얼 여성은 레즈비언 커뮤 쪽에 편입이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약순환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결국 퀴어 전반에서 스스로 각성하고 내부비판이 되어야 해요. 말로만 LGBTQAI가 아니라 사실 LG가 제일 많이 가시화된 실정이지 않아요. 그게 점점 변화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페미니즘과 함께 업데이트, 고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루트만으로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긴 참 어렵죠. 지금까지 게이, 레즈비언이 작업을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중고인 거죠. 퀴어 내부에서도 그 작업을 해야 하고, 또 헤테로 커뮤니티에서도 해야 하는데, 헤테로 커뮤니티에서 그 작업을 하려면 바이 단독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LGBT 연대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겨울: 바이들이 미국 퀴어 운동사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계속 지워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바이모임이 있고 그런데도.

샤샤: 사실 제가 바이로 정체화한지 이제 1년 반, 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변했어요. 저는 그래서 활동가로서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SNS를 하면서 행성인이 있는 것도 겨울님 통해서 알았고, 저도 조금이나마 그런 거에 참여해볼까 생각중이고, 물론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퀴어 운동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하고 싶어요. 요즘 인생 목표 중 하나가 바이 콘텐츠로 어떤 칼럼, 지면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기고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복학하고 안정이 되면, 언젠가도 오픈리 퀴어가 되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샤샤님은 운동이나 활동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이는, 즉 바이포비아를 받지 않는 단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듯 했다. 이것은 다른 바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이라 믿는다. 바이섹슈얼들이 삭제되면서 바이포비아가 만연한 분위기가 되고,

때문에 단체에서 바이포비아와 마주칠 게 두려운 바이섹슈얼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이러면서 바이들에게 열려있는 단체들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이는 빈칸이다' '바이는 독자적 아젠다가 없다'라고 하기 전에 커뮤니티 내부의 자정작용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내 주위에는 성소수자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비성소수자들에 대해 비웃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주위에 성소수자가 없는 이유는 너의 태도 때문이다"라고. 바이가 삭제되어 안 보이는 것 같은 현상도 퀴어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바이포비아 태도 아닐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이 이슈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바이모임 웹진이 있다. 글을 써서 올리는 곳이고, 늘 항상 열려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가보셔서 다른 바이분들이 기고한 글을 한번 읽어보고 동질감을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http://bimoim.tistory.com/>

국제적으로 연대를 맺고 싶은 바이분들을 위해서는 BiNet USA가 추천해준 국제 바이섹슈얼 네트워크가 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12391992191/> 책 중에는 Shiri

Eisner 의 “Bi: Notes for a Bisexual Revolution” 과 현재 영국 바이섹슈얼 운동가가 펴낸 “Purple Prose: Bisexuality in Britain”이라는 책이 있다. 아직 둘 다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하나를 기점으로 이 글을 마치겠다. #StillBisexual, 즉 지금도 바이섹슈얼이라는 뜻을 가진 태그인데, 바이섹슈얼리티는 하나의 단계라는 인식에 맞서서 우리는 지금도 바이섹슈얼이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속 바이섹슈얼이라는 뜻을 가진 구호다. 9월 23일 바 이 가시화의 날에 이 태그를 클릭하면 사진과 함께 이 태그를 써서 올린 사람들 역시 볼 수 있다. 원래는 2015년 1월에 시작된 이 태그는 바이섹슈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바이포빅한 사회에 맞서서 싸우는 뜻으로 만들어졌고, 가시화를 목적으로 쓰인다. <http://stillbisexual.com/> 이라는 사이트도 존재하고, 온라인 샵도 있어서 관련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http://stillbisexual.bigcartel.com/> 개인적으로는 "바이섹슈얼들을 그만 지워라"라고 쓰인 지우개가 당긴다.

다들 행복한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글쓴이: 겨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이 글은 2016년 9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C Coming Out

■ 커밍아웃으로 한 걸음씩



얼마 뒤면 곧 추석이다. 큰 아이를 며칠 동안 실컷 볼 수 있는 날이어서 나는 추석이 참 좋다. 하지만 아이에겐 마냥 좋기만 한 날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는 성소수자다. 또, 성소수자 중에서도 MTF 트랜스젠더이고, 남성으로 패싱 될 수 있는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한다. 하여 성가신 일들, 혹은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작년 추석엔 조카 녀석이 우리 아이를 보고 "(놀림조로) 여자잖아!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나는 "(우리 아이는) 여자야! 여자할거야! " 라고 가볍게 대꾸해줬다. 충분했을진 모르지만, 나는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지지를 표한 것이다.

물론 커밍아웃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나는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그리고 커밍아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미 양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지만, 이번 추석도 위의 대화처럼 가볍게 터치할 일이 많을 것이다. 커밍아웃이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사실' 하나 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끊임없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나는 여태껏 그래왔듯 그런 '커밍아웃의 과정'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지지를 표할 것이다. 다만 나는 커밍아웃이 억눌린 감정의 폭발 형태가 아닌 대화의 형태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지나친 경우가 아니라면 저 조카 녀석의 경우처럼 가볍게 대응하려고 한다.

여하튼 이런 자잘한 성가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이는 가족과 친척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 성소수자로서, MTF 트랜스젠더로서, 아이에게 추석은 통상적인 의미가 아닐 텐데도 말이다. 굳건하고 마음 따뜻한 우리 아이에게 고맙다. 이런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을 맞이하길 바란다. 하여 친척들에게 아이의 화장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했다. 그러니 이번 추석에는 마음껏 화장도 한 단계 '업'한 스타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성소수자분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추석의 본래 의미에 진정으로 가까운 것일 것이다. 다양한 음식과 곡물로 '풍성히' 수놓아진 추석처럼, 그 날에 모이는 사람들도 무지갯빛으로 다양하게 빛나야 하지 않을까.

글쓴이: 라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 부모모임

이 글은 2016년 9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D Diversity

■ 소수자성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기 머뭇거려질 때 ■



안녕하세요, 웹진기획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이입니다! 이제 행성인에 가입한지 1년이 다다오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느끼는 소수자성이 무성애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주로 무성애와 관련된 글을 써왔어요.

얼마 전,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본인의 소수자성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성인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무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있어요. 성적 끌림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무성애는 그다지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스스로

느끼는 정체감에 대해서 말할 때면 장황한 설명을 덧붙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설명을 할 때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매번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전달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피로감과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였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적다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성애자로 정체화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 분들이 주축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무성애자로 정체화하는 활동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마음만 키워나가던 중 행성인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동인련'이었던 이전 이름이 현재의 '행성인'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통해서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만약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곳을 찾아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행성인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행성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성애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정체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덧붙여야 했던 점은 다르지 않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주셨어요. 무성애를 알리고 무성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 했던 제 욕구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점점 행성인 활동을 하는 것에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성인의 장점이 여러 다양성의 성소수자가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의 소수자성 때문에 활동을 머뭇거리는 마음에 굉장히 공감이에요. 그러나 첫 한 번에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그 머뭇거림과 그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행성인 행사에 참여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 참여했던 행사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갔거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체성과 지향성을 갖춘 분들께서 행성인을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성인에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D

글쓴이: 케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이 글은 2016년 11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E Equality

함께 평등을 노래합시다

안녕하세요 :) 굿단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신지 걱정되네요. 일교차가 큰 것처럼 요즘은 우리의 마음도 들쭉날쭉한 나날이니까요.

성소수자 군인이 구속되고, 우리의 존재를 반대한다고 했던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등 요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건강이 걱정돼요. 저는 많이 아팠거든요. 물론 아팠던만큼 다시 힘을 내고 있지만요. :)

‘분노, 서러움, 두려움, 무기력함..’

지난 회원모임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며 가슴이 많이 아려왔습니다. ‘아, 역시 다들 아팠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희망, 연대, 저항, 용기 등’



힘이 나는 언어 또한 나누는 우리를 보며 또 한편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행성인의 힘이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행성인이 더 굳건해질 생각하니 지금 또 웃음이 절로 나네요. XD

이제 곧 5/17 아이다호데이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어느 교수가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가르쳤던게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곧바로 커밍아웃을 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요. 이렇게 아직 우리의 주변과 세상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의 힘을 말이지요.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변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냅시다. 그렇게 천천히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요즘 투쟁의 노래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저항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노래로 우리의 분노와 서러움을 표현하고, 노래로 희망찬 연대를 하며, 저항하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성인 안에 노래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 동지들에게 벌써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노래로 저항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노래부르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연대하며, 저항하며, 투쟁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행성인, 언제나 사랑합니다! :D 지금보다 더 강하게, 서로를 보듬으며 변화에 앞장섭시다!

글쓴이: 곱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7년 5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F Feminism

게이와 페미니즘

가깝고도 먼, 어쩌면 살얼음판 같은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게이와 여성은 절대 동병상련의 관계만이 아니며, 어떤 면에선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까지 가지고 있다. 어떤 게이의 혀끝에선 천박한 여성혐오가 신랄하게 쏟아져 나오며, 특정 페미니즘은 게이를 '여성 혐오의 최종적 화신'으로 본다.

물론 저들이 주류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 얘기를 꺼낸 것은, 저들이 그저 un-pc한 존재로만 낙인찍혀 담론의 뚜껑자체가 닫힌 건 아닌지 좀 아쉬운 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여성혐오적인 게이 가장 게이혐오적인 페미니즘은 들 여다 볼 가치도 없이 폐기 처분 해야 하는 걸까?

1. 게이에게, 너는 '왜' 여성혐오를 하나?

게이의 여성성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계속해서 갑론을박하던 주제였고, 나 역시 많은 고민을 했다. "여성 혐오인가?" "아닌가?" "그냥 맥락에 따라 다

르다는 나이브한 결론을 내릴까?" 그러다 고민의 프레임 자체를 다시 짜는 게 더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이들은 왜 '형'도 있는데 '오빠'를 쓰는가? 게이들은 왜 여성성을 '전유'하고, '여성적'이며, 여성적으로 '보이는'가?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강제된 이성애 사회에서 남성을 사랑하는 것은 여성이고, 여성이어야만 한다. 이성애는 성애의 재현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째, 이성애 재현 양식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둘 째, 그것을 패러디 하거나 셋 째, 아예 새로운 재현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허나 마지막 방법은 대개 실패한다. 무엇을 새로 만들어내도 그것은 결국 이성애의 모방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성애는 패권적인 재현이고, 다른 재현 양식을 죄다 잡아먹는다. 게이들의 욕망은 설령 도주를 시도할지언정 이성애 재현의 자장 안에 포박 당하고 만다.

주지하다시피 불균등한 권력으로 점철된 이성애를 차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이는 여성 억압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주체가 (흔탁하긴 하지만) 나름의(?) 남성이란 깨름칙한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위험한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

허나 나는 이 지점이 오히려 연대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터가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약간의 가지만 친다면 말이다.

게이의 여성혐오를 “게이 ‘도’ 남성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성혐오를 한다.”라고 분석하는 기존의 설명 방식은 게이의 여성혐오 원인을 남성이란 정체성 아래에 귀속시키며, 이는 게이에게 있는 남성적 요소를 처벌하고 절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허나 이런 대응은 남성 간의 차이를 지우며, 남성의 여성 억압을 자연화할 우려가 있다. (남성은 ‘남성’ 이라서 여성을 억압한다?) 따라서 나는 게이는 왜 굳이 이성애를 경유하는지,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 결정적으로 왜 그것이 여성혐오로 연결 되는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에 남성은 자기 안의 여성을 색출해내려 하지만 게이는 그렇지 않은 않다. 여성이란 타자로 관통된 주체인 게이는, 타자의 목에 목줄을 차서 노예처럼 삼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타자 속으로 허물어 져가며 타자와 융합할 수도 있다. 이는 게이와 여성과 관계 맺고 있는 다층적인 양식 덕분이며, 이는 여-남 관계가 ‘억압’ 이라는 단일하고 절대적인 축으로만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이는 남성 간의 차이를 드러내며, 남성이 여성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2. 페미니즘에게 사랑을 받는다.

페미니즘은 성을 ‘권력’이란 렌즈로 보는 인식론이자 사랑(대개 이성애)을 정치화 하는데 천착하는 사상이다. 페미니즘은 사랑에 덕지덕지 붙은 환상을 뜯어내버리며 사랑이 얼마나 위선적인 권력 양식에 불과한지 성공적으로 폭로했다. 허나 가끔은 잔인하리만큼 사랑을 바싹 말려버리기도 했다.

앞서서 특정 페미니즘 진영은 게이를 여성 혐오의 화신으로 본다고 했다. 이들은 남성 동성애를 마침내 완벽히 통합된, 남성 연대의 귀환으로 여긴다. (근대의 남성 연대는 그 유대가 일정 수위를 넘으

려고 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순환적 구조지만, 남성 동성애는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속만 하는 고착적 구조라는 것이다.

처음 저 주장을 접했을 때는 불쾌함과 반발만이 들었지만, 오히려 나는 이 지점에서 다시금 연대의 토대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결국 페미니즘이 허물어내고 재구성해야 할 관계는 두 가지인데, 첫 째가 앞서 말한 여성과의 관계(억압)며 둘째가 남성과 남성의 관계(권력)이다. 한데, 페미니즘이 다양한 남성 간의 관계를 전부 권력으로 환원하고 매몰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페미니즘이 에로스에 침투한 권력들을 제거하려면, 그 무엇보다 권력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은 페미니즘의 필터를 다층화해줄 것이다. 또한 그럴수록 게이들에게도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지던 동성애를 다각도로 점검해봐야 하며, 욕망을 끊임없이 정치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 게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욕망을 정치화 하는 페미니즘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성소수자 운동은 때때로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여튼 앞서 논의한 사안을 종합해보면, 게이와 남성 권력과 약자성은 동시에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남성(특권자)으로서 페미니즘을 옆에서 ‘조력’하거나, 소수자(약자)로서 페미니즘에 ‘참여’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방식은 뼈격거리게 된다. 게이들은 본인의 위치를 다시금 곱씹어봐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고작 두 가지였던 연대의 양식이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나가며.

이 글은 어찌 보면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겠다. 면죄부를 주고 도피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다. 나의 방점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앞서서 말해왔듯이, 나의 의도는 첫 째로 연대의 지점을 여러 곳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위계적인 기존의 연대 방식을 비틀어내는 것이다. 헤테로 여성과 게이 남성이 남성-여성, 이성애자-동성애자, 즉 가해자-피해자, 억압자-피억압자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세된 남성-종속된 여성으로서 기존의 여-남 구도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냐고 제안하는 것이다. (헤테로 여성의 헤테로 권력은 결국 남성 권력으로부터 굴절돼 나온 것이며, 게이 남성의 남성 권력은 부분 거세되어있으므로) 단순히

연대의 양만 늘리는 것보다, 다양한 주체를 생산하고 개입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종 많은 연대들이 동일성(공통의 억압, 성질, 적 등등)이라는 단일한 기둥에 의존한다. 허나 이런 연대는 타자가 나와 다른 인간이었음이 밝혀지기만 하면, 삼시간에 무너지고 만다. 그 뿐 아니라, 타자는 이제 그 누구보다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숙적으로 변모한다. (메갈리아가 나를 동맹군이라 여기던 게이에게 가장 크게 분노했던 것처럼) 결국 나와 동일한 사람은 세상에 없고, 그렇다면 연대란 불가능한 것이 된다. 나는 연대의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필자는 연대의 토대를 갈등의 한 복판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왜냐하면 갈등의 지점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깊게 연루된 장소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갈등을 들춰수록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누군가 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철을 담금질 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리라.

글쓴이: 스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이 글은 2017년 3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G Gay

■ 갓난아기가 바라본 이쪽 세상

“넌 아직 얘기야”

이쪽 친구들과 놀다 보면 종종 듣는 소리다. 행동이나 체형에 관한 소리가 아니라 이쪽 세계에 입문한지 얼마 안됐다는 말이다. 그렇다. 나는 게이로 산지 막 6개월이 지난 말 그대로 ‘갓난아기’다. 지금부터 갓난아기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2013년 1월 6일, 나는 눈을 떴다. 2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양수 속에 움츠려 있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응애응애” 대신, “사랑해도 될까요?”란 말을 하면서…….

솔직히 양수 속은 답답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죄다 이성애중심적인 소리들이었고, 나는 여자를 좋아해야만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남자를 좋아했던 적도 있지만 그 주변의 소음들 때문에 그냥 동경이라는 감정으로 대체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다행이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내 편도 없는 상황에서 “난 남자를 좋아해!”라고 했다면, 나는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양수 속에서 움츠린 채 지냈을 것이다.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24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신 빛이 보였다. 그 빛이 날 세상 밖으로 이끌고,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었다. 사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좀 벅차기도 했다. 24년을 어둠 속에서 지냈으니까. 그래도 그 덕분에 나는 지금 폭풍성장 중이다.

그 빛은 나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난 그 빛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신기하게도, 난생 처음 접하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았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기에 생각한다. 호모 포비아들도, 직접 접해본다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사실, 이쪽 세계에 입문하고 나서 어리둥절한 적이 많았다. 일단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았다. 때짜니, 마짜니……. 이건 뭐 완전 갓난아기가 입을 떼는 수준이랄까? 한번은 이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 적이 있는데, 마침 파전에 막걸리가 땀겨서 ‘전 집’에 가자고 했다가 토끼눈이 돼서 놀란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야 알게 된 거지만, ‘전 집’이라고 하면 보통 종로3가의 게이들이 많이 가는 그 전 집이라고…….

종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처음 친구들을 따라 종로의 어느 술집에 갔을 때, 나는 그 곳이 게이바 인 줄도 몰랐다. 그저 좀 비싼 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게이바 라는 것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남자들로만 꽉 차 있어서 놀란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게 다였다. “어? 진짜 남자밖에 없네?” 그리고 나서 다시 술자리에 집중했다. 그 곳은 별다

른 위화감이 없었다. 평소 생각하기에 게이들은 일반과는 뭔가 다르게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른 술집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날 포장마차에 가서 합석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솔직히 그때의 나에게 그들은 너무나도 벅찼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 번 만나보고 싶다. 히히.

뭐, 용어나 문화는 어느 정도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도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건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해질래야 익숙해 질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부정적인 시선을 접해 본적도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디서건 애인과 커플템을 착용하고 다니고 팔짱을 끼고 다녔었다. 하지만 이 쪽 세계에 입문한지 어언 8년이 되어가는 내 애인님은 그게 아니었나보다. 결국 마찰이 있었고, 이제 밖에서의 스킨십은 자제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갓난아기’란 게 드러난다. 경험해보질 못했으니 두려울 게 없는 거다. 아기들의 위험한 장난이다 그런 이 유에서겠지.

사실 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싶고 당당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그런 시선들을 피해 숨으면 숨을수록, 우리들 스스로가 숨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아는 형에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다. 다행히도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그 성공의 큰 요인은 어느 웹툰 하나였다. <모두에게 완자가>라는 웹툰이다. 형은 그 웹툰을 보기 이전까진 ‘양과 음의 조화’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마인드가 컸다고 한다. 그런데 웹툰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변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의 커밍아웃에 나를 지지해준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낸다면 마음을 돌릴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굳이 웹툰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조금씩 우리들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알아주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겁을 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를 양수 속에서 나오게 해준 그 사랑스런 빛처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 빛이 되어야 할 차례이다.

글쓴이: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이 글은 2013년 7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H HIV/AIDS

지지? 뭘 지지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겨울 송년회부터 행성인과 함께하기 시작한 세인이라고 합니다. 세인 아닙니다. 인권활동계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시스템더 게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 점 죄송스레 생각합니다. 잠깐! 글을 작성중인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2016이 왜 시스템더에 빨간 밑줄을 긋죠? 후지네요. 아무튼 제가 신년회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연말 행사부터 나가게 된 건 뭔가를 기다리지 못하는 급한 제 성질 때문이겠죠. 실은 작년 12월 말에 들어왔으니 활동한지는 4개월이 되어서 뭐라고 쓸 말이 없지만 알량한 경험을 토대로 말을 이어보겠습니다.

처음 행성인 왔을 때 어떻게 HIV/AIDS 인권팀을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별 생각 없이 골라서 그런 것이려나요. 만약 정신건강과 관련된 팀이 있었다면 그 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고르라고 해도 저는 이

팀에 들어올 것 같아요. 콘돔을 끼지 않은 채 섹스를 하고서 성병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했던 온갖 상상들 때문이었을까요, 친구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팀 사람들이 좋아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과 죽음이라는 코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이들을 비판할 추가적인 명분임과 동시에 우리를 분열, 혹은 결속 시키는 아이러니컬한 병. 해외 게이 인권운동의 역사는 에이즈의 역사와 그 흐름을 함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아무래도 결속 보다는 해체에 가까운 듯합니다. 아마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회에서 제외시키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이 병이 인간관계의 해체가 아니라 결속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놓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지? 뭘 지지하는데?” 에이즈 인권활동가의 집에 초대받아 놀러갔을 때에 활동가 분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무엇을 지지하는 걸까요? 감염인들의 인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들어 아는 것은 감염 사실을 말하는 순간 게이 인생이 끝난다는 친구의 말, 온몸에 발진이다 퍼질 때까지 확진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못하다가 쓰러질 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갔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더 곪을 뿐인데 우리 사회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의, 사회의 건강을 지지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하다는 게 무엇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어떻게 지지해야 할지는 알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인권 운동의 시작이자 반인 것처럼 감염인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커뮤니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나아가야 할 걸음이 아닐까요?



사랑은 존재의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사랑 받기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하기에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이겠죠? 비단 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투쟁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당신은? 우리는?

글쓴이: 세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팀

이 글은 2017년 4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IDAHO

아이다호 데이를 맞아 다시 생각해보는 전환치료

국제 아이다호 데이(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요새는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라고 쓰기도 한다)는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2009년에는 트랜스포비아(때문에 IDAHOT이라고 쓰기도 한다), 2015년에는 바이포비아(이름에 포함되었다. 점점 더 포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 WHO에서는 국제질병사인분류를 검토 중이고 2017년에 개정된 판이 나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중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부서, 그리고 성과 생식에 관련한 부서에서는 성 건강과 성적 질환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만들었다. ICD-10(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10차 개정판)에서 정

신장애, 행동장애에 관련한 것은 성적 발달과 지향에 관련한 정신 그리고 행동장애를 포함하는데, 이는 F66항목에 정리되어 있다. 소위원회는 F66항목이 젠더 정체성을 다루지만, 역사적으로는 성적 지향에 관련된 항목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ICD-10에서 "성적 지향은 그 자체로 질환이 아니다"라고 써져 있지만, F66항목에서는 성적 지향과 젠더 표현법에서 파생되는 특정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고 말한다.

해당 소위원회는 결론에서 F66항목이 ICD-11에서 전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F66에 나와있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다른 항목에 의해 의료적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의학적, 공중보건적, 그리고 연구법적으로도 성적 지향에서 파생된 진단상의 분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정신장애나 행동장애가 없는 성소수자의 의료적 요구 역시 다른 항목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일련의 권고는 성소수자성에서 파생되는 특정 정신질환이 있다는 인식을 폐기하고, 성소수자들이 인권 친화적이고 제대로 된 의료적 접근을 받게 하자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곳에서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것처럼 인식된다. 이런 인식을 가장 잘 내포하는 것이 바로 '전환치료'다. 전환치료는 말 그대로 성소수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행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다.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성적 지향을 바꾸기 위해 하는 심리적 치료행위를 지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부모나 법적 대리인(...)등이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나 행동질환으로 표현하는 일을 막으라"고 했다. 또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정신적 상태는 많은 스트레스나 장애를 유발할 때에만 정신질환이라고 정의되는데, 대다수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젠더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장애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커다란 문제는 상담, 호르몬 치료, 의료적 행위, 그리고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방해물, 가령 사회 내에서의 차별

이나 폭력, 사회가 그들을 인정하는 것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비트랜스젠더보다 더 높은 비율의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혹은 다른 정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는 전환치료는 아직도 미국 여러 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심리학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성 그 자체가 심리적 문제나 트라우마처럼 처리되어 이들이 마치 영원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인식이 남아있다. 더구나 이런 호모포비아적 인식을 통하여 학대를 빙자한 전환치료로 돈을 버는 곳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극단적 기독교 집단으로, 성소수자성을 질환이라고 명명하는 곳과 '종교적' 이유를 들어 전환치료를 실행하는 곳으로 나뉘진 다.



미국에서 전환치료가 금지된 주를 보여주는 지도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오레곤, 일리노이, 뉴저지, 그리고 워싱턴 D.C 에서만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곳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시내티가 유일인데, (뉴욕은 2016년 2월에 뉴욕 시장 쿠오모가 전환치료 금지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2014년 12월 28일 오하이오에서 일어난 릴라 알콘이라는 17살 트랜스젠더 소녀의 죽음이라는 배경이 있다.

14살에 릴라는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을 했으나 어머니는 "신이 너를 남자로 만들었고 영원히 남자로 살 것"이라는 폭언을 했다. 이후 부모님은 그녀를 기독교도 전환치료사들에게 보냈고 그녀는 이에 대해 "그냥 더 많은 기독교도들이 나에게 '너는 틀렸고 이기적이며 신에게서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16살에 트랜지션을 받기 위해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그날 밤새 울었다고 썼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이 나중에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의 일환에서 게이 남성이라고 자신을 지칭했다. 학교에서 그녀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릴라 알콘의 보수적 기독교도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릴라 알콘을 계속 '조슈아'라고 부르며 그녀의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퇴시키고 온라인 학교에 등록시켰으며, 5개월 동안 친구나 SNS 등 외부와의 접촉을 아예 차단했다.

유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 내 죽음이 뭔가 의미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내 죽음

은 올해 자살한 트랜스젠더의 숫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누가 그 숫자를 보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고쳤으면 좋겠다. 제발 사회를 고쳐 달라

라고 썼다. 트랜스젠더 인권 기관에서는 '릴라 법', 즉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1월 24일 하루동안 330,009명이 이에 서명을 했다. 또한 1월 3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릴라 법'을 제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1월 30일에만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전환치료를 중단"하라는 발언을 했고, 대변인은 "미국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미 정부의 입장에서, 오바마 정부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

지하려는 노력에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신시내티 시 위원회는 미성년자에게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미국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 12월 9일에 통과시켰다.



생전 릴라 알콘의 사진

이것은 비단 외국만의 사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인 성소수자 자식을 부모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작년 5월에는 20대 트랜스젠더인 김연희(가명)님을 부모가 전환치료랍시고 종교기관에 보내 처음에는 "귀신이 들렸다"며 '축사'를 행하고, 힘들게 도망쳤으나 붙잡힌 그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종교단체는 근본주의적 기독교계의 군소 교단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전환치료 사례는 소수 기독교인에 의해 행해지는 단편적인 사건에 불과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전환치료를 옹호하는 <나는 더 이상 게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는 거대 기독교 단체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최근 총신대학교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며 반동성에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해당 강연자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다졌는데, 이는 전환치료의 논리, 즉 성소수자성을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논리가 계속 퍼질 것을 의미한다. 전환치료가 미성년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5월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에서도 해당 피해자는 20대였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미성년자들은 부모에게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전환치료를 더욱 취약하다.

한국에서도 릴라 알콘같은 사례가 이미 일어났으나 알려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릴라 알콘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글을 남길 수 있었고, 해당 소셜 미디어는 성소수자들에게 무척 관대한 곳이었다. 더 이상 릴라 알콘이나 김연희님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전환치료를 성인/미성년자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성소수자성 그 자체를 정신질환이나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보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아이다호 데이에 씩씩한 뒷맛을 느낄 것이다.

글쓴이: 겨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이 글은 2016년 5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J Justice

“왜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 스티븐 스프링클 교수 강연회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섬돌 향린 교회에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언트 신학대학원의 스티븐 스프링클 교수의 강연회가 열렸다. 스티븐 스프링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범죄에 희생당한 14명의 이야기를 담은 <누가 무지개 깃발을 깃밟는가>의 저자로, 이번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공식 강연 주제명은 ‘누가 무지개 깃발을 깃밟는가 - 성소수자 혐오 범죄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 구조적 문제를 말한다’ 였다. 그러나 실제 강연 주제로 스티븐 스프링클 교수는 ‘내 아이를 잊지 말아라 - 성소수자 혐오범죄로 희생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왜 정의로운 일인가’를 내세웠다. 한국에 강연을 간다고 하자, 희생자였던 15살의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강연 제목으로 해달라며 부탁한 말이었다고 한다.

강연회장은 약 7~80명의 사람들로 꽉 들어차서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그 열기가 높았다. 같은 대학의 강남순 교수가 순차 통역을 맡았다. 한국어로 옮김에 있어

서 낯설법한 용어는 부연설명을 하거나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등 통역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였다. 서로를 댄싱 파트너라고 일컬으며 강연자, 통역자, 참석자가 함께 유기적으로 어울리며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스티븐 스프링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의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이야기는 청자의 삶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게 몰두시키기 마련인데, 듣는 과정에서 청자가 살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었음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기자신으로 재탄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소수자 혐오 범죄도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 자신이 당하지 않을 수 있을 법한 살인(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닐 경우)에도 같은 강력한 끌림을 주는가? 이것이 그의 첫 질문이었다. 교수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흑인, 노예, 유대인의 혐오범죄 사례가 결국 인류 보편적으

로 동감하며 애도할 수 있는 문제가 되듯, 성소수자 혐오 범죄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건과 이야기가 주변 사람의 눈을 뜨이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강연 중인 강남순 교수(왼쪽)와 스티븐 스프링클 교수(오른쪽)

스프링클 교수가 인터뷰한 사람 중, 혐오 범죄 피해자 매튜 셰퍼드 사건을 담당 수사반장 오멜리는 사건을 맡기 전에 굉장한 호모포비아였다고 한다. 그러나 끔찍하게 살해당한 현장을 접하고 “눈이 떠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인권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매튜 셰퍼드를 단지 숫자에 불과한 희생자 중 하나가 아니라 실제 내 친구, 가족과 같은 진짜 사람으로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혐오범죄는 그저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끔찍한 부정의를 알리는 계기가 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킨다.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혐오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성애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오면서 차별 행위와 혐오 범죄 행위를 정의를 행한 일이라고 정당화하는 경우다. 특히 종교가 여기에서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혐오 범죄 중 열에 아홉은 종교적인 신념을 기반으로 했을 정도로 말이다. 물론 이에 맞서는 신앙 공동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과거와 달리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며 비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변 교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커밍아웃한 신앙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신앙공동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직접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꾸리기도 한다.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성소수자 혐오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의 장례식을 치르기를 거부하자, 이에 부조리를 느낀 사람들이 성소수자들도 포용하는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런 과정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쿼어적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희생자들은 단지 비극의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등장인물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불행이 반복되지 않고 불행을 넘어서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고 스프링클 교수는 믿는다. 그래서 혐오 범죄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움직임은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듣는 청자의 선함을 밖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4월에 진행했던 육우당 추모제를 떠올릴 수 있었다. 육우당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세상이 아닌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며 죽은지 10년이 지난 올해 많은 사람들이 대한문 앞에 모여,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 하면서 육우당의 고민을 계속 이어가는 자리를 가졌다. 그것은 누군가의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리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를 추모하며 그의 고민들을 다시 생생하게 살리는 자리였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문제가 더 많이 불거져 있고 혐오 범죄의 수는 적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교수의 말에 따르면 공식적인 커밍아웃한 사람의 수가 적어 혐오범

죄 피해자의 수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혐오 범죄가 늘었다고 한다.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적은 까닭은 사회적으로 밝히기에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 이 경우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죄책감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혐오 범죄와 자살 모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비극임을 교수는 지적했다.

스프링클 교수는 시종일관 동성애 혐오가 인종차별이나 나치즘과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다. 교수의 낙관적인 믿음을 마냥 믿고 싶다. 비록 미국의 사례더라도 그의 책이,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사람의 선함을 깨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퀴어적인 공동체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 한국에서 그의 책이 출간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글쓴이: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이 글은 2013년 10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K Korea

전국퀴어모여라, 일단 대전!

안녕하세요, 서울 살다 대전으로 이사 온 시경입니다. 대전에서 본격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퀴모를 통해서요. 서울을 벗어나고서야 퀴어 네트워크의 맛을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퀴모-전에서 보낸 시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전퀴모 식 전배

2015. 4. 5. 전국에 퀴어 나무를 심겠다며 핑크핑크한 모종삽을 들고 전퀴모가 대전에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날 레놀을 처음 만났네요. 우리는 로즈마리를 심기로 했고, 레놀과 저는 공원관리자의 손에 뽑혀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키코마리(히키코모리 + 로즈마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2015. 5. 16. 서울역, 아이다호 행사에서 Roza를 처음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대전에 사신다기에 그저 반가운 마음이었지요. 그 만남이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꿈도 꾸지 못한 채..

2015. 5. 25. 대전, 저와 Roza와 레놀이 둔산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전퀴모 대전지부 창립 성지가 되어버린 어느 닭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2차, 3차를 달려 제 방으로 왔습니다. 대전지부 임시 사무실로 삼자며 도원의 결의를 다지고 보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2015. 8. 8. Roza님의 활약으로 대전지부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급기야 '서울에 산다고 소외당한 기분이다 억울해서 안되겠다'는 일군의 친구들이 대전에 오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놀 생각이었는데 자꾸 인원이 늘어나더니 급기야 서해바다(대전)에 방을 잡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곳에서 칩박을 만났죠. 전퀴모 본부에서 재경까지 날아 온, 최고의 서해바다였어요.

2015년 9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에 반대하며 행성인은 대전시의회 앞에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날 회사 일로 시의회 안에 있었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싶었지요. 마침 그 가을에, 일 년 넘도록 기다려 온 쌍차이가 오랜 잠수를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2016년 6월의 쿼퍼를 끝내고, 전퀴모가 대전에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소소하게 수다나 떨자던 계획은 신청인원수가 40명에 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사 조직이 되었죠.

2016. 7. 16. '대전산책',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대전의 퀴어들을 만났습니다. 그 날로 행성인 회원이 된 분도 있고요.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반가운 만남, 우린 밴드를 하나 트고 그 날 이후 이 작은 도시에서의 일상들을 공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여소감을 묻는 설문지에 적힌 '숨통 트임'이라는 네 글자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대전산책에서 확인한 것은 그 밖에도 많아요. 특히 지역 내 퀴어단체들끼리의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졌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할 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평소에도 잔잔하게 즐거운 기억들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영화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2016. 10. 8. 대전산책으로 만난 세 단체-행성인 전퀴모, 솔롱고스, 카이스트이클-가 모여서 영화 <불온한 당신>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대전의 세 단체가 함께 호흡을 맞춰본 것은 처음이었죠. 상영회를 준비하던 중, 2016. 9. 22. 목원대학교 혐오 조장 현수막에 대한 신고가 솔롱고스에 접수되어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퀴모 대전의 쌍차이가 함께 하는 등 크고 작은 만남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정작 상영회 당일 장비 문제로 관람하기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자리해 주신 분들 모두 이해해 주셔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이 대전지역 상영회에 경남/경북에서, 전남/전북에서, 경기/충청에서,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전주, 대구, 부산에서도 오셨습니다. 세고 또 세어도, 네 번 다섯 번을 다시 세어 봐도 전국에서 모인 퀴어들 90여명이 객석에 있었습니다. 사실 소소한 대전지역 상영회를 기대했던 우리는 감독과의 대화에만 60여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2015년 4월, 히키코마리를 심으며 시작한 대전에서의 활동은 이제 일 년 반 남짓입니다. 활동회원편지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활동이라는 게 별건가요. 퀴어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어디서든 내 모습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울 권리가 있으니까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퀴어모여라,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지금, 같이, 즐겁게 지내요!

글쓴이: 시경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퀴어모여라

이 글은 2016년 10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Lesbian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성소수자 안전에 대해

협박범과 경찰의 2연대로 완성된 혐의범죄

급게 접힌 편지가 문틈에 끼워져 있던 것을 발견한 건, 오후 7시경. 퇴근 후 곧장 향한 집 현관문 앞에서, 연인의 깜짝 편지일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는 기분으로 편지를 펼쳤다. 하지만 나는 곧 충격과 공포로 손을 떨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잠금 장치를 모두 걸고, 믿을 수 없어 다시 읽어내려간 편지는 러브레터가 아닌 협박 편지였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첫 번째 문장은, '벽 너머로 들리는 신음소리는 잘 듣고 있다' 였다.

협박범은 자신이 옆집 남자이며, 나와 내 연인이 레즈비언인 것을 알고 있고, 밤마다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 벽에 귀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다음주에 친정집으로 몸조리를 위해 떠나니 다음주 주말 밤에 자신의 집으로 돌이 와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

당시 내 자취방은 양쪽에 집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양쪽 모두 부부가 살고 있었다. 협박범은 본인의 집이 몇 호인지 쓰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패닉에 빠졌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던 끝에 생각해 낸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편지를 들고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경찰에게 편지를 주고 이 협박범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협박 편지를 읽은 경찰의 첫 질문은, "진짜 레즈비언이세요?" 였다.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경찰들은 편지를 돌려보곤 일단 돌아가라고 말했다. 집에서 기다리길 40여분, 곧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의 자취방을 훑어본 뒤, 둘 중 한 명이 편지를 들고 왼쪽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고, 그 집의 세입자 남성이 나오자 상황을 설명하고, 필체를 보겠다며 수첩을 요구하고, 수첩과 편지를 비교한 뒤, 필체가 다르다며 내게 다시 편지

를 돌려줬다. 소요시간은 10분. 현관문이 열려있어 문틈으로 그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현관 안쪽에 서있던 경찰이 질문을 했다. "진짜 레즈비언?" "옆집에서 알만큼 요란하게 해요?"

경찰의 2차 가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인기척이 없던 오른쪽 집에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내가 다시 확인을 요청했을 때 찾아온 경찰은 처음에 온 두 명이 아니었다. 다른 두 명의 남자 경찰이 내 집을 찾아왔고 나를 구경하듯 훑어보고는 오른쪽 집에 같은 절차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명의 경찰이 집 안에 서있었다. 당시엔 연인이 자취방에 도착해 있었는데, 굳이 목을 빼고 둘러보다 연인을 발견하곤 "그럼 저 사람도 레즈비언?" "저 사람이랑?" 따위의 질문을 던졌다. 연인까지 충격을 받을까봐 나는 황급히 경찰을 밖으로 내보냈고, 수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절차는 10분 안에 모두 끝났다. 당연히 성과는 없었다. 경찰은 집 앞 골목 순찰을 돌겠다는, 사건에 맞지 않는 처방을 내놓고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이사를 가기 전까지 매일 매일, 내가 사는 집 건물의 모든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연인과 함께 있어도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낄 수 없었다. 작정을

하고 나선 남성 한 명을 여성 두 명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추가 범행의 증거가 될까봐 이사 전까지 버리지 못한 협박 편지는 늘 내 서랍 한 구석에 자리하며 나와 같은 방을 찼다.

당연한 권리를 위해

가해자가 나를 레즈비언으로 확신하게 된 것은 나와 내 연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집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동네 어디에서든 내가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봤을 수 있다. 외부에서 손잡고 팔짱끼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내 성적지향은 약간의 의심과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알아챌 수 있는, 노출된 정보인 셈이다.

나의 정보를 획득한 남성 범죄자의 입장에서, 여성과 여성의 조합인 레즈비언 커플은 너무나 만만한 타겟이다. 가해자가 편지를 내 집 문틈에 끼워 넣으면서 과연 이후의 내 반응에 대해 아주 약간이라도 걱정을 했을까? 여성 자체를 하등한 동물로 보는 남성 범죄자의 입장에서, 여성 중에서도 남성이라는 힘의 권력을 차용할 가능성이 없는 레즈비언은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앞선 사건은 '차별'을 동기로 하는 혐오범죄다. 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에게 나는 그런 협박을 받아도 마땅한 대상이 됐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도 되는, 그로 인해서 도망치듯 이사를 가는 시간과 비용을 손해 봐도 되는, 피해를 입어도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만 해도 되는 존재. 그것이 나였고, 여전히 나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은,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피해자로서 신고를 넣었다면 마땅히 남성 개인으로서의 호기심이나 편견을 접어두고 경찰로서 나를 대했어야 하지만, 반대로 경찰의 의무를 접어두고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범죄의 이유를 나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통해 2차 가해를 했다. 몇 년이 지난 오늘, 다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경찰의 2차 가해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

내가 협박 범죄자와 경찰에게 받은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었다. 법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범죄라는 개념과 그것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피해를 본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권익옹호를 위한 바탕이 돼야 이후로 조금씩이나마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마땅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동일하게 짊어진다면, 국민으로서의 권리 또한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나는 내가 사랑할 사람,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행복추구권에 의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두려움도 없이 손을 잡을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아니,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언제든지 두 번째 편지가 문에 끼워질 수 있는 현실 앞에서는 나의 안전, 나아가 생명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대선을 앞둔 요즘, 성소수자이기 이전에 국민인 나의 권리를 용감하거나 용감하려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 당사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시기다.

글쓴이: 심해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7년 4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M Marriage

■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

지난해 9월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 많은 이들이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응원했다. 하지만 구청은 혼인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둘이 함께 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함이다.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커플은 무엇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것일까?

얼마 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다큐멘터리 <퍼스트댄스> 상영회를 열었다. <퍼스트댄스>는 미국 보스턴에 사는 오래된 레즈비언 커플인 선민과 로렌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결혼식까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영화에서 로렌은 평범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평범'이란 그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파트너로서, 법적으로 사회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이룬 가족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성소수자 가족들은 불안한 지위와 차별적 대우를 감수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동성결혼 제도가 꼭 필요하지 묻기도 한다. 그냥 둘이 같이 살면 그만이지 법적인 제도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결혼 제도의 부재로 인해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꽤나 많다.

가령 자신의 파트너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결혼을 못하는 동성커플은, 보호자로서 서류 작성을 하거나 곁에 있어주지도 못한다. 영화 <더월 2>에 나오는 레즈비언 커플 중 한 명은 파트너가 병원에서 죽어갈 때 곁에 있지 못하고, 파트너가 죽은 후에야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불과 10m 떨어진 병원 대기실에서 말이다!

다른 예도 있다. 땅값 비싼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전셋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정부에선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준다. 동성커플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자격으로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열심히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회사에서 '가족'을 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휴가나 수당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와는 달리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성 부부를 비롯한 공동의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들은 제도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인 이유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필요한 것일까? 꼭 그렇지 않은 않다. 다큐 <퍼스트댄스>의 제목인 '퍼스트댄스'는 결혼, 즉 함께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다큐 속 선

민과 로렌이 했던 춤은 연습 끝에 이루어진 춤이다. 함께 산다는 것이란 이 춤과 같이 서로 한발 한발 맞추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없다면 서로 발맞추는 데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사회에서는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두 명' 그 이상도 이하고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받는 온갖 차별은 그러한 낙인에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에서 동거 커플이 갖는 위상을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동성결혼 제도는 그 사회적 낙인을 없애준다. 즉 제도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 받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준다.

동성결혼 제도를 비롯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성소수자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제는 그러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성소수자 가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때이다!

글쓴이: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이 글은 2014년 11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N Non-mono

■ 내가 나로 살기위해서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별입니다! 저도 드디어 활동가 편지를 써 보내요. 저는 작년 여름에 처음 행성인에 왔고, 그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몇 번 모임도 나가고 활동도 꾸준히 하다 보니 2017년 운영위원으로도 함께하게 되었네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바이섹슈얼로 정체화를 하면서 성소수자에 관한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마구 찾았어요. 그 과정에서 퀴어포박한 말들을 엄청 보고 들었죠. 많은 자료를 접하는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운동도 접했어요. 나중에 커서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인권단체에 취직하면 어떨까 싶어 근무하는 분들의 봉급은 얼마나 되나 찾아본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이미 그때의 꿈을 이룬 셈이네요.

행성인을 제대로 안 것은 세월호 1주 기 때 시청 광장 행사를 갔을 때였어요. 사실 그 전에도 무지개 깃발을 발견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저에겐 좀 친근했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인지 몰랐다가 드디어 깃발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은 거죠. 저는 퀴어지만 퀴어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나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찾아가긴 좀 무서웠어요.

저는 퀴어 커뮤니티에서 손을 뗀지도 오래되었고, 딱히 동성을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남자친구도 생겼거든요. '남자친구도 있는 여성인 네가 무슨 퀴어야? 바이인거 증명해봐'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저 스스로도 '이런 내가 퀴어 당사자라고 하면서 가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주 바이포비아의 정석이죠. 그래도 힘들게 용기를 내서 신입회원모임을 나갔는데, 아무도 저의 정체성에 대해 추궁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바이임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진짜

바이인지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이 저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을 붙이고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바이 프라이드 짱짱한 지옥의 바이전사가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논모노(non-mono)분들을 위한 '논모노로그'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바이뿐 아니라 하나보다 많은 젠더에게 끌림을 느끼는 모든 지향성을 가진 모든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예요. 최근에 텀블벅을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포럼,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등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퀴어한 한 해 되세요!

글쓴이: 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이 글은 2017년 2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O Open

■ 벽장문을 깨고, 밝은 내일로!

안녕하세요, 행성인 회원 여러분! ! HIV/AIDS인권팀과 청소년인권팀에서 활동하는 용용이라고 합니다. 근근이 여러 활동에 얼굴도 내비쳤지만, 이렇게 편지로써 인사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행성인에 처음 온 게 재작년 1월쯤이었으니, 어스새 2년이 지났네요!

평소에 알던 친구가 같이 행성인 청소년인권팀 모임에 나가보자고 해서, 처음엔 많이 고민했어요. '할 것도 없는데 한번 가보자.' 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던 청소년인권팀은 신기하고 이상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다른 또래 성소수자들이 있었고, 서로 존댓말을 썼던 것이 인상에 남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활동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소수자인 사실이 드러날까 겁이 났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지만, 인권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실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게이인건 상관 없지만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활동을 계속 하면서 걱정은 사라져갔어요. 제가 퀴어인 것에 자신감이 생겼고,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처음 커밍아웃할 땐 두려웠지만, 많은 친구들이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였어요. 더욱 자신감을 얻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우선 차세대기연(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연대)이란 단체를 알게 되었고, 섬돌향린교회에도 나가면서 퀴어 크리스찬으로서 저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성소수자가 죄인지 아닌지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성경, 동성애>라는 책을 읽으면서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몇 년동안이었던 고민이 해결되어 너무 행복했던 기분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올해는 성소수자 부모모임에 참여해서 울기도 하고, 퀴어퍼레이드에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HIV/AIDS인권팀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HIV/AIDS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 팀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엔 '내가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도 매우 끔찍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정보들과 수많은 혐오 발언 속에서 고통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행성인 활동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준 원동력입니다. 소위 말하는 '벽장계이'였던 저를 '가슴 벽찬 게이'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주변 성소수자들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혐오·차별 발언을 듣고 아파하고,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종교와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

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서 그들을 어둠 뿐인 벽장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을 깨고 나온 것처럼 말이지요.

올해는 더욱 벽찬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내고, 퀴어퍼레이드 때 트럭에도 올라가보고 싶어요. 아직은 제 바람이지만요, 일단 쓰고 싶던 활동가 편지를 쓰게 되면서 올해 할 일을 하나 이뤘네요

회원여러분, 작년 한해 바쁘게 달려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행성인 2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모든 퀴어들이 벽장문을 깨부수는 그날까지 우리 멈추지 말도록 해요. 투쟁!

글쓴이: 용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HIV/AIDS인권팀

이 글은 2017년 1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P Peace

■ 퀴어로서 병역거부를 고민하기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사회에서는 저의 존재를 불편해하고, 가급적 드러내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철저하게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에 따른 위계화와 규범이 작동하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심한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내는 목소리는 이단이고, 말썽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여부가 곧 생활에서의 차별로 연결되는 사회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이러한 폭력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합니다. 성에 대해 보이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온통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고 저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군사주의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와 군대는 남성성, 그것도 폭력적인 전투적 남성성만을 습득하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상적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남성성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젠더의 취향과 성향을 가진 이들을 열등하다

고 여겨 훈련 혹은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존재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그대로 학교에서 청소년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시끄러워

저는 '적'으로 설정된 사람들을 향해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계속하며, 무기로 위협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군사주의에 깊은 회의감

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결정권자들은 서로 상대 권력자뿐 아니라 주민들 모두를 비인간화하고, 그 주민들을 향해 끔찍한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권력 다툼의 희생이 되는 건 권력을 갖지 못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군대는 누구에게 향할지 알지도 못할 무기들을 가지고 강제로 훈련을 시키며,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수성 대신에 호전적이고 정복적, 공격적 기질을 가지도록 하는 군생활을 징병제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철저한 상하 권력구조를 통해 불합리한 일들을 따르거나 참아 내도록 강제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회의감은 곧 이러한 곳에서 내가 머무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용감하게' 말을 듣지 않는 상대를 무찌르고 정복하려는 감성보다 '나약하게' 상대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대화를 해보고 싶은 감성을 조금씩 더 앞에 두게 되면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을 좋아하면서 강요받아온 성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가져오게 된 두 번째 고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 교실 안 폭력적 교육 시스템을 저를 '계집애 같은 아이', '곱상해 보여서 사회생활이 걱정되는 아이'로 취

급하고 모질게 괴롭혀 왔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작동되는 군사주의는 남학생에게 '씩씩하고 상대 성에 대해 정복적인 젠더를 추구할 것이며,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성인', 여학생에게 '방정스럽지 않고 조신하며 다소곳하게 자랄 것이며, 수동적이고 얌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것을 강요하곤 했습니다. 교실이나 병영이나 모두 이분화된 성별 구조를 통해 이 문제 많은 사회가 원하는 특정 '상품'으로 만들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때 젠더 다양성이나 성 소수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폭력적 군사주의를 성찰하고 극복해야 함이 선결 과제임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병역 거부에 대한 저의 두 번째 고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성소수자의 위치는 매우 위태로우며, 극심한 유무형의 불이익과 고난 앞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군형법의 동성에 처벌 조항과 병영 안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서, 또한 나의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을 일탈로,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성애 중심적 사회의 폭력성을 경험

하면서, 군대 문화가 장려하는 마초적 남성성의 허상이 이렇듯 주위에 상처를 주는 것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고 싶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타인과 적대하기보다 함께 서고 싶은 저는 군비와 병력, 무기의 힘을 믿고 듬직하고, 의젓하고, 어엿한 대한의 건아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대화와 평화적 생존권을 추구하고 변태적, 일탈적, 도착적, 비정상적으로 불리는 취향을 가진 문제 많은 이반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자꾸만 나를 억압하려는 군사주의에 저항하면서 병역 거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병역 거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아닌, 과정으로서 생각하며 평화와 젠더 평등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글쓴이: 디에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3년 12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Q Queer parade

■ 스톤월 항쟁과 자긍심 행진의 정신



자긍심 행진에 참여해 본 성소수자들은 누구나 각별한 첫 행진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처음 행진하던 날, 광장에서 거리로 첫발을 떤 순간의 떨림, 함께 걷던 사람들의 벽찬 표정, 거리에 크게 울리던 음악소리, 울컥 눈물이 날 것 같던 순간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내가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임을 한껏 드러내며, 행렬을 함께 하는 수많은 성소수자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밤의 도심 거리를 걷는 순간의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성소수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종교를 제 명분 삼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이들이 활개 치는 사회

에서 성소수자의 자긍심 행진은 즐거운 축제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자긍심 행진은 ‘스톤월 항쟁’이라는 성소수자들의 투쟁의 결과물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장이기 때문이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6월 28일, 미국 뉴욕의 게이 술집이었던 스톤월인(Stonewall Inn)을 단속하는 경찰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항거한 날이다. 당시 미국의 게이업소들은 마피아가 소유한 곳이 많아 손님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고 경찰의 단속과 이를 빌미로 한 괴롭힘이 빈번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69년 6월 28일 새벽, 경찰은 여느 때처럼 스톤월인을 단속, 손님들을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이 날은 달랐다. 체포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스톤월인 주변의 군중들이 경찰에 항의와 야유를 퍼부으며 동전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항쟁이 시작되었다. 200여명의 군중은 2000여명으로 늘

어났고, 이들은 밤새 경찰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7월 초까지 스톤월인 주변 크리스토퍼가에서 산발적인 항쟁이 지속되었고, 거리엔 ‘게이 파워’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스톤월 항쟁은 성소수자 운동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성소수자의 모습을 강조하며, 청원이나 로비를 통해 성소수자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던 기존의 호모필 운동(homophile movement)은 스톤월 이후, 더 이상 충분치 않은 것이 되었다. 스톤월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의 운동가들은 흑인 민권 운동의 슬로건을 차용한 ‘게이 권력(Gay Power)’, ‘게이는 좋은 것이다(Gay is Good)’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소수자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했다. 스톤월 이후 나타난 게이 해방 전선(Gay Liberation Front)과 다양한 조직들은 성소수자 대중의 직접 행동과 연대를 통한 기존 사회 질서와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

운동과 여성 해방운동, 반전운동 등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스톤월 항쟁’을 통해 성소수자 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자긍심 행진도 스톤월 항쟁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다. 스톤월 이전에도 성소수자들의 행진은 있었다. ‘Annual Reminders’라는 이름으로 1965년에서 69년까지 매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앞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피켓팅이 있었다. 소수의 운동가만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고용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성은 자켓과 타이틀, 여성은 드레스를 입고 피켓팅에 나섰다. 하지만 스톤월 이후, 이러한 방식의 시위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스톤월 항쟁 이후 열린 호모필 단체 동부 지역 컨퍼런스(Eastern Regional Conference of Homophile Organizations; ERCHO)에 모인 운동가들은 기존의 ‘Annual Reminders’의 날짜와 장소를 옮겨 현재의 자긍심 행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거리 해방의 날(Christopher Street Liberation Day)’을 개최하기로 결의한다.



Annual Reminder
가 보다 의미 있
고, 많은 수의 사

람들에게 미치며, 우리가 참여하는 - 우리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 더 광범위한 투쟁의 아이디어와 이상을 아우르기 위해 날짜와 장소를 옮긴다.

우리는 1969년 크리스토퍼 거리의 즉흥적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시위를 개최하고, 이 시위를 “크리스토퍼 거리 해방의 날”로 명명할 것을 결의한다. 이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어떠한 복장이나 연령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전국의 호모 필 단체에 연락하고 그들이 그날 유사한 시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를 표출할 것을 결의한다.”

- 1969년, ERCHO의 결의문

1970년 6월 28일, ‘게이 해방 행진 (Gay Liberation March)’ 혹은 ‘게이 자유 행진 (Gay Freedom March)’ 라는 이름을 단 행사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곧 미국 전역으로, 서유럽과 호주 등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월 경 개최되는 현재의 자긍심 행진의 원형이 된다.

1980년대, 급진적 운동가들의 힘이 약화되며, 행진의 이름은 ‘게이 해방 행진’에서 ‘자긍심 행진 (Gay Pride Parade; LGBT Pride Parade)’으로 변화한다.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면서, 자긍심 행진에 정치인과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자 행진이 정치적 의미를 잃고 상업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호주 시드니의 마디그라나 미국 주요 도시의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지역의 주요 행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자긍심 행진인 ‘퀴어 퍼레이드’는 그 개최를 위한 과정에서부터 여전히 한국 성소수자들의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 퀴어 퍼레이드의 개최를 저지하고자 하는 차별 선동 세력의 방해와 경찰의 행진금지 통고 때문이다. 퀴어 퍼

레이드의 집회 신고를 방해하려는 이들과 중립을 가장하며 사실상 그들의 편에 선 경찰 때문에 퀴어 퍼레이드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은 8일 밤낮을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경찰은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어떻게든 행진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방해목적 행사와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퀴어문화축제는 6월 9일 개막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긍심 행진, 퀴어퍼레이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열성적 안티는 열광적 팬에 다름없다는 말이 맞나보다.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는 이들 덕에(?)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올해의 퀴어퍼레이드를 스톤월 항쟁이 일어난 6월 28일, 시청 광장에서 맞이하게 되었다(*퀴어퍼레이드는 6월 13일 대학로에서 개최된 예정이었으나, 반대세력의 집회신고 방해로 인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6월 28일 시청광장으로 퀴어퍼레이드의 날짜와 장소를 변경한 바 있다). 어느 해 보다 거센 방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 퀴어퍼레이드는 열릴 것이고, 누군가는 올해 잇을 수 없는 첫 행진의 해방감을 맛볼 것이다. 45년

전,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며 거리로 나선 이들이 내딛은 첫 발걸음을 기억하며, 더 많은 이들과 즐거운 투쟁의 장에 함께 나서자.

글쓴이: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5년 6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R Remembering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 언제나 있으되 언제나 없는 이들을 기억하며

완연한 봄인 줄만 알았습니다.

따뜻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무지개 깃발을 드높이고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목이 쉬는 줄도 모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나름의 용기를 내어 입안에서만 맴돌던 노랫말을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은 서로가 서로를 발음(發音)하는 자리였습니다. 손에는 여성이 주어임을 선연히 상기시키는 문장들이 피어났고, 어떤 재주로도 '반으로 나누지 못할' 목소리가 모여 깊은 숨을 빚어냈습니다. 봄이구나. 행진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을 지나며 연거푸 나지막이 발음해보았습니다. 삼월의 첫 주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같은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을 보내고 맞은 첫 외출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세차게 부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올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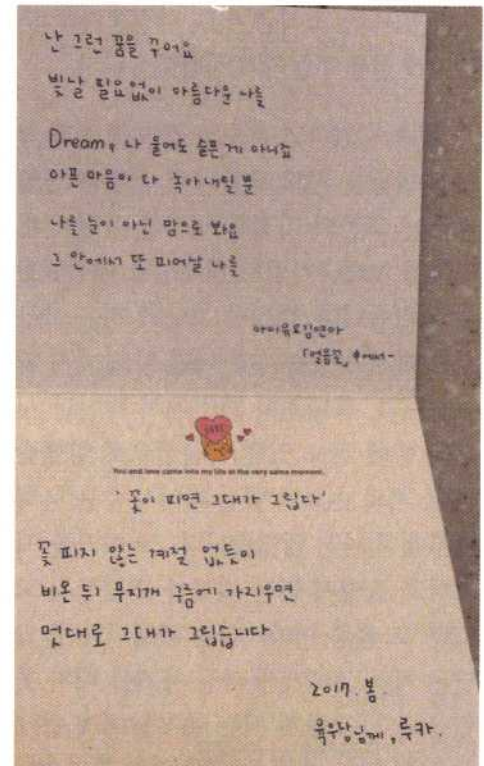
이 귀찮아 그대로 걸음을 뗐습니다. 바람은 기세 좋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외투 앞섶을 푹푹 싸맨 채로 정류장에 섰습니다. 도착 예정 정보와 달리 버스는 이십 분이 다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버스에 올라타 휴대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삼월 하고도 팔일이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인공 연못에는 살얼음이 떠다녔고 대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의 가지는 아직 앙상했습니다. 대로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탓인지 맞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어줍니다. 그래서인지 가는 길은 꽤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숨을 고르며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건물 안은 고요했고 소리를 내는 사람은 저뿐인 듯 했습니다.

건물은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편지가 있어 찾은 곳이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수령인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의 이름과 그가 남겨 두고 간 이름이 달랐으므로, 그가 있는 곳을 찾는 일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작게 난 창문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살짝 숙여 그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밝은 색으로 물들인 머리, 맑게 맺힌 눈망울을 가진 그의 모습은 참으로 어여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그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편지의 수령인을 제대로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매한 문인이자 당찬 활동가였던 그, 육우당.

최근의 시간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괴롭고 아픈 순간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육우당'이라는 이름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그리움은 저로 하여금 펜을 들게 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에게 짧은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건넨 뒤, 그렇게 쓰게 된 편지를 그의 곁에 붙였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한동안은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고민을 떨쳐내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저

는 가방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든 것은 육우당문학상 작품집이었습니다. 저는 수록된 이야기를 하나씩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마음이 아릿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음들이 끌어올려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역할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다 읽지 못한 책을 황급히 덮은 채, 도망치듯 로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루카가 육우당에게 남기고 온 편지

머릿속을 비워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페이스북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무지개깃발을 드높인 채 행진하는 동지들의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이어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무지개깃발을 펼치고 선 동지들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성평등 마이크'를 드는 자리에 '성소수자 없이 성평등도 없다'는 원칙을 전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확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은 어느 바람보다도 더 세차게 저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분노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냈을 지도 모릅니다. 차별에 영합하려는 그들의 비겁한 언사를 규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서 벗어난 시선은 손에 쥐고 있던 작품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손으로 넘긴 페이지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맺지 않는 것만큼 비겁한 일도 없다"고 종종 이야기하는 저입니다만, 그날은 차마 그에게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육우당에게 쉽게 값을 수 없는 아주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깊숙이 맺힌 울음을 애써 털어내려 해보았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저는 처음으로 눈물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속 부풀대로 부풀 감정의 주머니를 하나씩 터뜨리는 심정으로, 자책과 원망 같은 통한의 덩어리를 연거푸 게워내며, 많은 시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눈물 없는 울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울음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어느덧 십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와 저의 처지가 너무나도 닮아있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목직한 무언가가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 좀처럼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랐던 내일은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지금보다 더 먼 '나중'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에게는 이미 오늘이 나중인데, 너무나도 나중인데.

그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 한동안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덧없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내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흐르는 시간을 따라 우리는 수많은 '내일'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의 존재를 버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존엄을 짓밟고 있지요.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바랐던 내일을 되찾아주어야지요. 그러기 위해 제가 먼저 그에게 진 빚을 갚고자 합니다.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빚이라 혼자서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결말을 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존엄한 삶을 주장하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의 손길과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모든 등장인물에게 해피 엔딩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위협과 모략을 피할 수 있도록,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이 된 눈물 자국을 지울 수 있도록,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펜을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과정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기에, 후회 없이 외쳐보십시오.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글쓴이: 루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7년 4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S Solidarity

■ 무지개로 연대하라!



안녕하세요. 가끔 이곳저곳에 출몰하는 회원인 유결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학교에 다니다 계속 벽장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그해 여성의 날이었나, 서울역광장에 나갔는데 무지개 깃발이 있더라고요. 괜히 심장이 뛰고 신나서 카메라를 들고 펄럭이는 깃발을 찍는데 그때 깃발을 들고 있던 분이 저를 노려본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정말 깃발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된 단체가 없던 저는 얼굴 한 번 본 적 있다는 이유로 이경에게 이끌려 무지개 깃발 아래서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행성인의 회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의 이야기 | 행성인 A to Z

여성의 날에, 비정규직 집회에, 이주노동자 집회에, 반전집회에 함께하던 무지개 깃발이 좋아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저는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했지만, 여성이었고, 노동자이기도 했는데 이 단체는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한다는 점이 좋았거든요. 물론, 무지개깃발을 보며 흘깃거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넨 여기 왜 있는 거냐는 사람들도 있었고, 혐오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깃발 아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과 멀리서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이 깃발을 보며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 견딜만 했어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성소수자이면 당사자로서, 혹은 연대자로서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계속 우리를 드러낸 덕에 이제 집회행렬 안의 무지개 깃발은 당연한 것이 되어갑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작년에 가족수당 조건에 동성커플을 포함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아이다호에서

는 쌍용차 노래패가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고,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조례 투쟁 때 정말 많은 곳에서 함께 연대해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간에 비해 너무 작은 변화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런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매일 새로운 비리들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분야별 성폭력 사건들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철도파업과 난방비 인상 등 집에서조차 맘 놓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시국에 집회에 나갔더니 여기저기서 온갖 혐오를 버무린 문장들의 향연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나가려고요. 나가서 계속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집회에 나가서 이긴 적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지치기엔 남은 삶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어디선가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나아진 역사에 우리가 발자국을 남기게 될 거예요. 반드시.

글쓴이: 유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6년 11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의 이야기 | 행성인 A to Z

T Transgender

트랜스젠더 신여성이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행성인 웹진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안녕하지 못하시죠? 저 또한 안녕하지 못한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아마 트랜스젠더로 살아오면서부터, 아니 그 전에 성정체성 고민을 할 때부터 안녕치 못했겠죠. 아마도 대다수 성소수자들이 겪는 문제겠지만요. 잠시 소개드리면 전 올해 31살의 아직 미혼인, 우리사회가 말하는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여인이죠. 저는 의학적 용어로 불리고 싶지 않지만, 제 이름 앞에는 항상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동안 제가 트랜스젠더로 살아오면서 차별을 받고 힘들었던 점을 써달라고 부탁받았는데, 글썬요... 그 힘들었던 삶을 단 몇 장에 적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입니다. 차별? 이것은 트랜스젠더에게는 항상 일상에서 받고 느끼는 점이라서 글을 쓰기 위해 되짚어 보려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돌이켜보면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차별이 차별인지도 모를 만큼, 차별이라는 단어에 내성이 생겨 있었네요.

성소수자들 안에서도 가장 소수자에 속하는 트랜스젠더들 ...

속된 말로 친정 식구인 게이, 레즈비언들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없는, 소수자를 넘어 주변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또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트랜스젠더' 하면, 여자보다 더 예뻐야 한다고 규정된 이미지가 있죠. 저는 수십 번의 수술, 성형 수술, 성확정 수술을 받고 나면, 차별 따위는 없을줄 알았습니다. 13년에 걸쳐 제 몸이 여성으로 완성된 날이 아마 작년 3월 31일이었을 것입니다. 수술이 힘든 것은 다 아실테니 넘어가겠습니다. 휴... 그리 원하던 수술을 마치고 난 후 저는 정말 여성으로서의 인

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주 전혀 달랐습니다. 말이 좋아 여성이 된거지, 꾸준히 트랜스젠더라는 수식은 따라다녔습니다. 거기다 덧붙여 은어 표현으로, '완트' - 성전환수술 모두 마친 트랜스젠더 - 로 받아들여지면서 트랜스젠더들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수술 젠더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테지만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여성의 삶 속으로 포함되느냐, 그 또한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차별 문제에 맞닥뜨렸고 직장 문제, 경력 단절 등이 겹치면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술 젠더 친구나 언니들이더라고요.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수술 받은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지만, 나서서 드러내기 싫은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비성소수자가 아닌 성소수자 안에서도 비수술 젠더, 수술젠더로 나뉘면서 차별받고 차별하는 점들이 정말 슬프더군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기 췌고 색시한 모습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물론 그런 점들도 많겠죠. 저 또한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이 다는 아닐테죠.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일은 항상 뒤에 있는듯 합니다. 그

문제를 왜일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저희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차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트랜스젠더들 드세지 않습니다. 기갈스럽지만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여러분. 그냥 같은 성소수자 일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먼저 말도 걸고 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보기보다 저희 MTF 트랜스젠더들 가슴 따뜻한 여자들이거든요.

차별이란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약간 다른 곳으로 흘러간 듯하지만, 제가 느꼈던 차별중에서 같은 소수자 안에서 느꼈던 차별이 더 차갑고 아프게 느껴졌기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정말, 다른 틀림이 아니잖아요? 정말 인간 그 자체로 느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좀 더 바란다면, 트랜스젠더들의 활동이 많아졌으면합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 참 죄송합니다.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구나 생각해주시고 혹여라도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게되는 분들은 반갑게 허그 한번씩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글쓴이: K

차세기연 회원, 섬돌향린교회 교인
이 글은 2014년 5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U Union

■ 성소수자에게 노동권을 허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행성인 성소수자 노동권팀에서 활동하는 준태입니다. 노동권팀 회의에 처음 들어가서 멀뚱멀뚱 앉아 있던 게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고백하건대, 무언가 큰 포부를 가지고 성소수자 노동권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사 과정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인턴십에 지원했고, 면접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권 관련 활동을 꼭 하고 싶다고 했는데 덜컥 합격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도 활동하면서 같이 연대하면 좋겠다 싶어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이 '성소수자 노동권팀'이었지요. '노동권에 대해 잘 알아서' 또는 '노동권 관련 활동을 계속 해와서'가 아니라 가장 생소해서 선택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노동권팀 구성원으로 처음 참가한 활동은 '일하는 성소수자 모임'이었습니

다. 각자 다른 길, 다른 노동을 해오면서 성소수자로서 경험한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 노조가 생긴다면' 서로 다른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요구할지 공유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3회차 '전태일 평전을 읽는 밤'을 위해 근 20년 만에 다시 한번 전태일 평전을 읽고, 노동권 관련 여러 활동가의 패널토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더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 및 올해 이뤄질 한국의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을 위한 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이 꾸려졌을 때, 한편으로는 아는 것이 많이 없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노동권과 관련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짝막하게나마 노동권 관련한 일반적인 상황 및 질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동

안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아실현, 생계유지, 사회화 등과 떼어 놓을 수 없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은 그 시작단계인 구직 및 채용과정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직간접적인 퇴사 종용 등 심각한 수준의 노동권 침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해 동안은 노동권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활동을 해보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하는 성소수자 모임' 기획팀에 참여하여 좀 더 다가가기 쉽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사건이나 주제로 '퀴어들의 노동 읽기'도 종종 기고하고 싶네요. 행성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아직까지 신입회원 모임 '디딤돌'에 참여를 못했는데, 노동권팀 외에 다른 회원분들과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상임활동을 하면서 6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대응 담당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협소한 '양성평등' 해석의 문제점 및 여성 성소수자 노동권 침해 관련 발제 및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곧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성인 회원님 모두 올 한해 하는 일 잘 되길 기원하며, 저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준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 노동권팀

이 글은 2017년 1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V Vegan

채식하는 퀴어! 비건 퀴어 디올의 편지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회원편지를 쓰게 된 디올이라고 합니다.

저는 행성인에서 소모임인 "QAMERA"에 들어가 있고, 웹진에 폴리 아모리와 관련된 회원 에세이를 썼답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서 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그 채식하시는 분"

네! 저는! 채식하는 퀴어! 비건 퀴어입니다.

행성인의 뽀글 두들기다

행성인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된 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름을 계속 들었어요. 노동절 날 행성인 깃발을 본 기억도 나고, 행성인 부모 모임을 통해서도 이름을 들은 것 같아요! 저

는 동물권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사회의 어떤 약자 보다, 동물 만큼 착취당하고 죽어가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물권 활동가 중 퀴어와 페미니즘적으로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 소수자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행성인! 행동하는 성 소수자인권연대였습니다.

성소수자인 나와, 비인간동물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성 소수자 인 것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차별받고 혐오 당했어요. 그러나 이런 저의 다름을, "비인간 동물"은 항상 받아들여 줬어요. 인간에게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비인간 동물 앞에서만 오로지 "나"로서 저는 존재했죠. 비인간 동물과의 교감이 없었다면, 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비인간 동물을 죽이고 있었어요. 비인간 동물이 인간과 다르다고 착취하고 죽였죠. 한 존재가 발이 두 개인지 네 개인지, 지능이 높은지 낮은지, 땅 위에 사는지 물속에 사는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존재가 "고통" "슬픔" "행복"을 느끼느냐가 중요하죠. 이걸 깨달은 순간, 내가 동물이 인간과 "다르다" 이유로 아무렇지않게 착취한다는 것을 자각했어요. 그렇게 전 동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바르는 화장품에 동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것을 찾았고, 동물이 들어가지 않은 옷을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비건"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행성인 모임에 나가다

회원 가입을 하고 첫 회원 모임에 나갔어요. 신입 회원 모임이었는데요. 그 날 회원모임이 끝나고 다들 치킨집에서 뒤편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온 단체에서, "저 거기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라고 용기 내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뒤편이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조용히 다른 일이 있는 척 뒤편이에 참여하지 않았죠.

다음으로 간 모임은 성 소수자 부모모임이었는데요. 그때도 같은 치킨집으로 뒤편이를 간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른 채식인 친구가 있어서 용기 내서 가봤어요. 저는 기름을 치킨과 함께 쓰면, 감자튀김도 먹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없었지만, 그냥 조용히 뒤편이에 참여했어요. 굶는 것은 한국에서 채식인으로 살아가면서 익숙해져서,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동물권 활동가로서 눈 앞에서 "치킨"을 보는 거예요. 저는 닭을 3년 동안 키우고 있어요. 고기를 보면, 동물의 사체라는 생각 밖에 안 들고, 때로는 그런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며 눈물 흘려요.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어서, 또 비인간 동물의 죽음에 침묵했다"라면서요. 그러나 역시 뒤편이에 가서 친구들이 생겼어요. 뒤편이는 이렇게 사람을 사귀고 커뮤니티를 구성하기에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채식하는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죠.

행성인 비거니즘 소모임 "바삭"

솔직하게 적어보자면, 너무 힘들었어요. 동물권 운동을 하면서 퀴어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퀴어 운동을 하면서는 비건이기 때문에 힘들었으니까요. “어딜 가나, 난 포함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바라고 내가 상상하는 세상은, ‘나만’ 상상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동물의 해방만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성 소수자 여성의 해방만을 이야기하는구나. 나에게서는 여성, 성 소수자, 동물의 해방은 각기 다른 운동이 아닌데.”라면서요.

그런데 비건퀴어페미니스트 친구들을 만났어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권리를 확장시키는 운동,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의 맥락 안에서 저는 백인 중심사회를 거부하고, 유색인종 차별을 반대해요. 그리고 남성중심사회를 거부하고, 여성 차별을 반대해요. 또 이성애 중심사회를 거부하고,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해요. 이 사과는 이제 나아가서 인간 중심사회를 거부하고, 비인간 동물 차별을 반대하죠. 성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혐오 “당하는” 위치지만, 동시에 다른 존재(비인간 동물)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폭력성을 더 탐구하고 낱알이 밝히며 살아가요. 지속 가능하게 우리는 우리의 폭력성을 밝혀내야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나처럼 힘들어할 비건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성인에 비거니즘 소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인 “언니네트워크 비거니즘 소모임 ‘아삭’”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함께 답문을 키워가자며 소모임 이름을 비슷한 어감으로 “바삭”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저는 바삭거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요. 채식인은 풀만 먹는다는 편견을 붕괴시키고, 바삭한 채식이야기를 해보려고요! ㅎㅎ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뭉치는 것. 이렇게 뭉치는 것이 운동의 시작 이라고 생각해요. 행성인 비거니즘 소모임 “바삭”은 밥을 먹으러 다닐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이론이 교차하는 것을 프로패셔널하게 “바삭”이 풀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ㅎㅎ

글쓴이: 디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7년 4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W Work

■ 당신의 모든 시간 - 당신의 일터는 어떠십니까? ■

5월 1일은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입니다. 저는 지금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 앉아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목이 빠르고 어깨가 당기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오늘도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곱 시 십오 분 저의 알람은 늘 저를 깨웁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5분만 5분만 하다가 시계를 보면 일곱 시 삼십 분을 넘기는 날이 더 많습니다.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동성애자 게이입니다. 늘 마포구청 근처를 지나가며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 근처의 역까지 가는데 삼십 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늘 빈자리가 언제 생기지 않을까 이리저리 눈알을 굴려보아도 근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는데,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저보다 멀리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운이 안 좋네 라고 생각합니다. 늘 편히 출근할 수는 없지 하고서 지친 채로 회사에 여덟 시 사십 분쯤 도착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25층이라 엘리베이

터 타기도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오십 분까지는 자리에 도착해서 팀장님께 출근용 미소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어찌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아홉 시 전에는 컴퓨터를 켜고 하루의 노동을 시작 합니다.

저는 콜센터 노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인사를 하루에 많게는 140번, 적게는 80번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욕도 먹고 가끔은 친절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뭐 일은 논외로 치고 회사 생활의 묘미는 점심시간 이아닌가 싶은데요. 처음 입사를 하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3가지입니다.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여자 친구 있으세요?”

앞의 두 질문이야 늘 받아도 그려려니 합니다. “서른 한 살이요” “홍대 근처 살아요” 라는 답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질

문에서 고민이 됩니다. 여자 친구 없다고 하면 이 나이 먹도록 결혼할 나이에 연애도 안하고 뭐했냐? 라는 시선을 받을 것이고, 있다고 하면 여자 친구는 무슨 일 하나? 몇 살이냐? 얼마나 만났냐? 만나면 뭐하냐? 예쁘냐? 등등의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하기도 있다고 하기도 뭐한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연애한지 10개월째 접어드는 제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제 애인의 존재를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배웠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저의 일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득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환경인지, 아니면 나보다 훨씬 못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할 여유가 있는 일터에서 노동하고 있는지,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혹은 안드로진, 퀘스처너리, 에이섹슈얼 같은 당신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서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일터인지 말입니다.

당신의 일터는 어떠십니까?

당신이 흑시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면 최저시급 4860원 이상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시급 4860원, 1시간을 고생하며 일해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케익 한 조각 여유롭게 즐길 수 없는 시급입니다.

“손님, 주문하신 카라멜 마끼아또 나오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커피 가격이 자신의 시급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웃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6000원, 7000원을 받으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야간에 일하거나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더 힘든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힘든 일이니 임금을 높이 받는 것은 당연하고 더 쉬운 일이니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것이 어디냐는 인식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스스로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9시간 이상, 많게는 11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이성애자 노동자인 나는 존재하지만 성소수자 노동자인 나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성애자 직장 동료인 나는 존재하지만 성소수자 직장 동료인 나는 없습니다. 내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이 이런데 라고 합리화를 시켜도 늘 마음 한구석은 허전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인 당신에게, 노동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일터는 어떠십니까? 당신의 존재가 인정 받고 있습니까?

글쓴이: 형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 노동권팀

이 글은 2013년 5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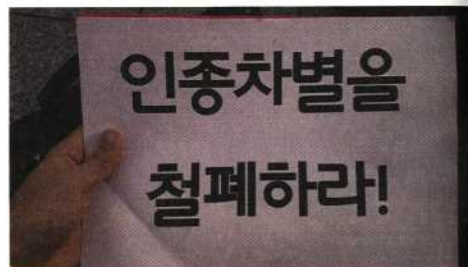
X Xenophobia

■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 맞이 집회 참가 후기

어제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이후 유엔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사실 내게 인종차별이란 말은 쉽지만 친숙한 말은 아니다. 그간 신문에 인종차별이란 말을 자주 보긴 했지만 그건 주로 미국 등에서 일어나는 ‘인종 갈등’에 대한 상식이나, 해외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이는 선수나 동포들이 어떤 식으로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개할 만한 사례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무슨 그런 게 있어? 인종차별이란 백인이 흑인이나 아시아인에게 하는 그런 거 아냐?

그러나 차별이란 가하는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주민 혐오'란 이름으로는 이미 여러 사례를 알고 있다. 유명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베트남 출신 엄마를 둔 댄서에게 날아든 악플과, 이자스민 의원 관련 기사에 뼈곡히 쏟아지는 비난들에는 다른 인종과 그들의 나라를 비하하는 말들이 어김없이

끼어 있다. 둘러보면 이런 감정들은 일상적이기까지 하다. 최근 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때는 인종차별이란 단어가 전면에서 나왔다. 하지만 언론으로 고개를 돌려 보면 어찌 된 일인지 작년 말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유엔 특별보고관 관련 보도 외엔 국내의 이야기를 잘 접하기 어렵다.



어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다른 회원 분들과 함께 보신각에서 열린 '인종차별을 멈춰라' 행사에 다녀왔다.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강제추방 반대나 고용허가제 철폐 등의 구호들이다. 일찍이 이주노동자 집회에서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인종차별로 생각해보는 적은 없었다. 하지만 차별

이란 등급을 나눠 구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경제수준이 보다 낮은 나라 사람들의 노동력을 소모품처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혹시라도 출국하지 않을까봐 의도적으로 정당한 권리 보장도 하지 않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같은 것들이 차별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어느 분의 발언처럼 한국인 또한 해외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했고 일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차별은 매우 부당한 것 아닐까?

또한 발언 중엔 단어에 갖든 차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함께 "STOP RACISM!" 을 외치면서 곱씹어 보니 내 안에도 차별적인 생각과 말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았다. 마치 주변에서 보이지 않아 무슨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을 받는 성소수자처럼, 인종차별의 사례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얼마 전 여성의 날 행사에서 본 여성 혐오란 단어에서도 든 생각이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본 행사가 끝난 뒤 "인종차별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데, 누군가 무리를 향해 "인종차별 안한다!" 고 단언하듯 외치는 것을 듣고 떠오른 설부른 의심이다.

글쓴이: 소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5년 3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Y Youth

■ 우리 함께 변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행성인 회원이자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은찬입니다. 이전에는 셰이프스페이스로, 청소년 자긍심팀으로 회원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평동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평동에서 다양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을 들고 찾아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납니다. 학교, 가족, 또래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차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차별, 폭력이 너무 익숙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동에 활동하기 몇 년 전, 저는 행성인이 동인련이었을때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로 활동했습니다. 10대 회원이 저밖

에 없었던 시절, '은찬이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청소년 자긍심팀(청소년 인권팀 나이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관심이 있던 회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출고 조그마한 성복동 사무실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우리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을 공유하는 자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 구술사 프로젝트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자긍심팀과 청소년 활동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자긍심팀은 다양하고 활기찬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놀토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길거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캠페인 등 다양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무지개들의 비밀일기>도 발간하였습니다. 청소년 자긍심팀은 동인련 내에서 가장 시끄럽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평동에 방문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처럼 당시에도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혐오, 차별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차별 발언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했지만 따돌림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친구의 죽음을 곁에서 보내야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차별, 혐오, 폭력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 제가 고민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아직도 많고, 안타까운 사건은 아직도 계속해서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폭력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평동과 같은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평동이 하고 있는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있습니다. 학교 내의 괴롭힘에 용기 있게 대처한 경험이나 학교에서 받은 차별 사례에 굴하지 않고 직접 행동하여 바뀌나가는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뿌듯해지고, 힘이 나는 이러한 이야

기들은 저에게도,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행성인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며, 회원들을 더 가까이 만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불안하고 어두운 한국 사회에서 커뮤니티는 더 단단해져야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더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해야 사람이 모이고, 바뀌고, 연결됩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 특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자긍심이 생긴다면 내가 변하고, 주변이 변합니다. 변화는 어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항상 연결되어있으며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함께 변해볼까요?

글쓴이: 은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
이 글은 2016년 12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Z Zigzag

반짝반짝 서로를 비추는 성소수자와 장애의 이상한 커넥션

종종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접근하는 사회적 인식을 비교하곤 한다. 혐오와 동성, 배제와 시혜의 관점은 비슷한 듯 다르게 체감된다. 동성애가 성도덕을 위반하는 혐오대상으로 갈음된다면 장애인은 동성과 시혜로 필터링된다는 비교가 이젠 익숙하게 (그만큼 전형적으로) 들린다. 동성애가 성도덕 사수를 위한 최후의 보루처럼 사회전반을 검열하여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된다면, 장애는 시혜성 제도 아래 의료적 손상을 등급으로 나눠 사람의 장애와 비장애 여부를, 장애 등급을 구분한다고 풀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접근은 역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성소수자는 불행하고 우울한 존재이기에 치유와 전환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동성에 진영 내부에 환기된다. 반대로 장애인은 (최근 지적장애인시설 반대를 보더라도)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 올바른 교육에 악영향을 주는 존재로 낙인찍힌다. 장애와 성소수자 양자

의 넓고 복잡한 맥락을 몽뚱그린 거친 비교지만, 정상성 규범과 그에 대한 오랜 투쟁의 역사는 둘의 상이한 맥락들을 관류한다.



정상성 규범 위에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나누는 이분법적 구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동성과 수치심을, 혐오와 모욕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분법이 항상 몸과 마음을 간명하게 재단하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랜스젠더는 젠더불일치 장애로 명명되었다. HIV/AIDS 감염인과 같은 만성 질환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이 보장 받는 공적 제도의 적용을 고민하게 만든다. 성소수자 차별선동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당사자는 정신질환

에 취약하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바로잡는 자긍심운동이 정신질환을 겪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커뮤니티 내부 성소수자 장애인인 고민된 적이 있을까. 성소수자 장애인들의 젠더감수성과 성적 권리는 아직까지 오랜 침묵 속에 제언어가 울림이 될 수 있는 통로를 탐색하고 있다.

불편이고 불완전이며 불안으로 점철되곤 했던 소수자의 몸과 마음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장애와 비장애가 교차한다. 장애와 성소수자로 호명되는 언어에 대해 구성원들은 동일시하거나 거리를 두고, 때론 부정하기도 한다. 명명하고 명명되는 가운데 나와 규범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나아가 규범에 대한 태도가 저마다의 삶을 구성하기에 성소수자와 장애의 문제는 존재와 관계로 확장된다. 제도와 인식의 경계에 정위되어 노동권을 상실하고 공적 장소에서 소외된다는 점에 성소수자와 장애는 노동과 빈곤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열악한 치료접근권과 건강권은 표준적인 노동주체의 모델을 상정함으로써 성소수자와 장애를 노동과 엮는다. 규범은 다시금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2등시민으로, 하위주체로 밀어넣는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장애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묻게 한다. 성소수자로서 장애를 대하는 경험, 혹은 그 반대적 경험은 어떻게 접근되어야 할까. 장애의 낙인 한편에는 장애로조차 인지되지 못하는 오랜 아픔들이 있고,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치료와 사회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나의 몸과 마음의 울렁임을 장애로 호명하는데 저항하고, 장애를 굴레로 만드는 사회적 제도와 환경들에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장애로 인정받고 제도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등록되지 못한 '장애'의 호소가 울리는가 하면, 장애와 사회적 지원을 저울질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제한을 두는 제도적 프레임은 집단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다. 끊임 없는 질문과 다양한 갈래의 경험들을 고려하는 장애와 성소수자가 교차하는 성찰의 과정은 새로운 언어, 몸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는 가능성을 배태한다.

성소수자들은 정상성 규범으로부터 이탈되고 배제되고 삭제압력을 받지만 그렇기에 정상성규범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저항하고 새로운 윤리와 제도를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와 접점을 갖는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정치적인

이유이자 장애가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장애에 대한 다양한 결의 생각들, 내 몸과 마음이 안고 있는 장애를 장애로 인지하는 경험들, 우리의 문제로서 장애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장애와 비장애 구분에 앞서 타인을 마주함에 나의 몸을 바라보고, 나와 타인을 구획짓는 사회의 기준을 비판적으로 주시할 수 있다면 좋겠다.

글쓴이: 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 글은 2016년 4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행성인, 활동의 묘

글쓴이: 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인권활동을 합니다'

인권활동가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들을 많이 접한다. 성소수자로서 나를 표현하고 차별과 혐오에 성소수자로서 맞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성소수자 의제가 넓어지고 가시화의 요구도 커지며 활동의 파이가 커지는 배경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자신이 인간임을 외치는 과정 속에 인간의 정의가 끊임없이 갱신된다. 그 과정은 인간을 정의내리는 사회변화의 요구도 포함할 테다. 설명되고 의미 부여되지 못한 누군가의 이름들을 기억하는 노력을 인권의 의미라고 거칠게 정리한다면, 성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활동은 인권과 교집합을 갖는다.

삭제된 이름을 다시 쓰고 사회변화로 연결 짓는 활동의 성과는 삶의 동력이 된다.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는 성소수자로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지지망이 된다. 하지만 활동은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한 수행이다. 사람들 앞에 목소리를 만들고 얼굴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 나는 성소수자 활동가로서 언어와 태도를 제공한다. 활동은 나를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활동인 것이다.

행성인 집단활동의 기여

행성인은 개별의 활동을 공동의 언어로 묶어낼 수 있는 운동단체이다. 고립으로부터 연결을 추구하며 생각을 나누고 집단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회원들의 참여로 단체가 운영되고 활동이 만들어진다. 소속

단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단체 이름 아래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행성인에는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상이한 취향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인다. 집단의 활동을 구축하기에 나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이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단체는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노력 속에서 활동을 만들어낸다.

활동의 열기를 지속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대개의 활동들은 활동주체가 전업활동가가 아닌 이상 개인의 일상으로부터 시간을 쪼개 활동한다. 성패를 보장할 수 없고, 더욱이 어떤 보상을 예비할 수 없는 활동은 열정차취의 오명을 얻기도 하며, 그 속에서 활동가는 소진되기 쉽다.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위해서는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가며 힘을 주는 노력들이, 공동의 노고를 남기고 기억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행성인

성소수자 의제가 가시화되고 양질의 팽창을 겪는 상황 위에 행성인은 커지고 있다. 회원들과 활동을 기획하고 성소수자 운동의 지형을 이뤄낸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며 불화를 피할 수 없는 활동의 궤적 위에 우리는 저마다의 고민과 생각들을 나눈다. 갈등이 산재해 있지만, 그 과정에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활동을 모색한다. 관심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성소수자운동의 결을 모색하는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활동을 통해 그간 없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삶의 형식들을 만든다. 변화를 위해, 우리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행성인과 함께 행동하자.

CONTACT US

행성인 활동팀/소모임 소개

행성인 활동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2009년부터 만들어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며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년 4월 말에는 '故 육우당 추모 및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격주로 열리는 회의 및 정기모임을 통해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_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팀:나이반

트위터 @queer_teens

성소수자 노동권팀

성소수자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일하는 성소수자 모임,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등 이외에도 노동관련 세미나 진행 및 노동자의 날이나 전국 노동자 대회 때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평등한 일터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로서 겪는 경험, 좋았던 일, 고민, 즐거움, 분노 등을 공유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일하는 성소수자 대나무숲>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_ rainbownodong@gmail.com

일하는 성소수자 대나무숲 페이스북

_ @rainbownodong

HIV/AIDS 인권팀

HIV/AIDS 감염인과 에이즈의 주범으로 공격 당하는 취약그룹의 연대를 바탕으로 감염인과 취약그룹의 인권 보장이 진정한 에이즈 예방임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드 에이즈> 등 HIV/AIDS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회원들을 위한 <HIV/AIDS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가시화 되면서 자신의 자녀나 가족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부모/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성소수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 고민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매달 정기모임을 개최하며 대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 <성소수자 부모 심층 인터뷰집 - 나는 성소수자의 부모입니다>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부모모임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실무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모임 홍보/기획/참여/정리 및 부모모임 활동 전반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홈페이지

_ www.pflagkorea.org

메일

_ rainbowmamapapa@gmail.com

페이스북

_ @rainbowmamapapa

트위터

소모임

등산모임 <홍산회>

행성인 내 최대규모 소모임입니다. 홍산회는 '흥건하게 산을 타는 회원모임'의 줄임말로, 2013년 6월 8일 청평 호명산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월 1회 함께 모여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산을 타는 시간보다 뒤풀이 시간이 3배 정도 길다는 건 홍산회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트위터 [lgbti_mountain](https://twitter.com/lgbti_mountain)

여성모임

여성모임은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여성성소수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격월 1회의 정기모임과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페이스북_ @LBTIWOMEN

트위터_ @LBTI_WOMEN

멜로카톡 @lbt_i_women

전국 퀴어 모여라

전국퀴어모여라(전퀴모)는 서울/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커뮤니티와 행사를 다양하고, 지역에 사는 퀴어들을 만납니다. 전퀴모는 전국의 퀴어들을 만나 행사를 열고, 흩어져 있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디에 살든 소외받지 않고 성소수자라고 차별받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을 지향합니다.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와 함께 사람들을 만나 활동하고 싶은 전퀴모 임지기분들도 환영합니다.

이메일

_ koreaqueers@gmail.com

카톡

@전국퀴어모여라

페이스북

_ 검색창에 '전국퀴어모여라'를 검색

블로그

_ <http://koreaqueer.tistory.com/>

카메라(Qamera)

카메라는 사진찍는 퀴어들의 모임입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퀴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퀴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굳이 비싸고 큰 카메라를 소지할 필요 없이, 디지털카메라, 필름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만 있어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카메라는 한 달에 두 번 공식적인 활동을 가집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친목의 시간을 가지고 사진 찍는 스킬을 공유하는 '출사'와 '이 달의 주제'에 맞춰 회원들이 제출한 사진을 감상하고 베스트컷을 고르는 '회의'입니다.

트위터_ @Qamera
Insta_ _qamera

행성리 청년회

30세 이상인 행성인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투쟁 의지도 다지는 모임입니다. 30대 이상 회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해보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비거니즘 소모임 바삭

종 차별적 구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거부해 나가는 성소수자들의 모임입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비거니즘에 대한 담론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함께 모여 채식식당을 찾아다니고, 포트럭(potluck) 모임을 진행하며 채식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건'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닌, 육식을 지양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부담 없이 함께하세요!
페이스북_ @veganqueer

책임기 모임

책임기 모임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뜻이 있어 온 행성인 회원들이 더 풍성하게 나누는 통로로 고안되었습니다. 사안과 이슈 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을 나누면서 행성인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에 책임은 매우 좋은 도구이며, 우리를 더욱 더 가깝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관심 있는 분의 참가를 바랍니다.
이메일_ passiomate@gmail.com

퀴어들의 스터디(퀴쓰)

퀴쓰는 다양한 분야의 인권과 사회 문제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다만 그 접근을 주로 페미니즘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게이와 여성혐오', '핑크머니' 등을 주제로 수다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정체성, 지향성, 성별, 나이, 행성인 회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참관 혹은 가입 가능합니다.

카톡_ kybmk

행성인 노래패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며 힐링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으로 실력을 단련해 여러 공간에서 공연도 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우리의 행복을 찾고, 더 나아가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도 하려합니다. 노래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철도 소모임(레일보우)

레일보우는 국내 및 해외 철도 교통수단 그리고 철도를 이용한 여행에 관심 있는 퀴어들이 취미를 공유하고 철도여행 정보도 나누는 모임입니다. 철도에 대해 잘 모르셔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열차만 봐도, 열차만 타도 무언가 가슴이 설레고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철도 애호가입니다! 레일보우에서 함께해요~

몸짓패

몸짓이란 노동운동과 함께 만들어진, 춤을 통한 문예선동입니다. 성소수자 또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회나 문화제에서 연대 공연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반 연습실에 모여 선생님께서부터 몸짓을 배웁니다. 잘 추지 않아도 괜찮으니 걱정 마시고 문을 두드려보세요. 구경 오셔도 환영합니다.



행성인 A to Z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의 이야기